

사 회 과 학 논 총

제 23집

2020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목 차

관계맺기에서 정보찾기까지: 대학생들의 인스타그램 이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웅기	1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 유형과 삶의 질의 관계: 여가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진아	17
성역할갈등이 20대 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진영	67

관계맺기에서 정보찾기까지:
대학생들의 인스타그램 이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용기*

【목차】

- I. 서론
- II. 문헌고찰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및 제언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의 수도권 거주 대학생들이 인스타그램 이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밝히고자 했다. 특히 최근에 국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인스타그램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인스타그램 척도는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만남 추구와 친구관계 맺기와 같은 변인들이 인스타그램 이용의 예측 변인들로 나타났다.

Key words: 인스타그램, 이용과 충족, 대학생

*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I. 서론

2018년 이래 핸드폰 이용자가 6600만 명을 넘으면서, 인구100명당 가입자 수는 129.7명으로 나타나며(KOSIS, 2020, 이동전화 가입자 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A10)). 2020년 2월 최신 통계자료에서는 5136만명이 스마트폰 이용자로 나타나고 있다(2020, ITSTST, <http://www.itstat.go.kr/stat.it?no=1149>).

이용 관련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스마트폰 사용시간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능은 게임이 첫 번째, 그리고 다음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였다(comScore, 2013). 특히 국내의 경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SNS 이용에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SNS)는 이제 우리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 국내 5명 중 1명이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는 점차 증가되면서, 2018년에는 특히 18-34세 연령대에서 국10명중 8명이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https://www.gov.kr/portal/gvrnReport/view/H1910000000124950?policyType=G00302&srchTxt=>)). 특히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네이버밴드, 인스타그램의 순서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카카오톡 이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스타그램은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 이용률이 10~30대 여성 이용자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페이스북의 이용이 높았다.

현재 국내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대표적인 SNS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들 SNS를 이용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56분 정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세대는 20대로 하루 평균 1시간 7분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10대 순으로 이용량이 많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SNS접속 및 이용은 자연스럽게 주로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지며, 스마트폰을 통한 SNS 이용량은 하루 평균 52분으로, SNS 접속시 스마트폰 이용 비중이 92를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NS와 관련된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기술 및 정책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다수 논문들의 영역들은 SNS의 이용 동기나 이용유형에 관한 행태 또는 세대 간의 이용차이 등 기초적인 연구범주에 속하며, SNS의 유용한 면을 강조한 면이 많았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에 국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인스타그램을 커뮤니케이션학의 이용과 충족에 관한 연구들에 비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이용과 충족 이론

이용과 충족 관점에 근거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매체를 이용하는지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60년대 이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용과 충족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은 능동적으로 매체를 선택하며 매체와 관련된 충족요인들로 인해 매체를 이용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맥케일, 블럼러, 그리고 브라운(McQuail, Blumler, & Brown, 1972)은 텔레비전 시청자들의 이용 동기를 크게 4가지로 분류했다 - 도피(escape), 사교(company), 개인적 준거(personal reference), 그리고 감시(surveillance). 또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이용과 충족 관점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이용 동기를 논의해 왔는데, 이들 연구들을 재정리해보면 크게 습득(learning), 습관(habit), 시간보내기(pass time), 사교(companionship), 도피(escape), 흥분(arousal), 그리고 휴식(relaxation)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Rubin, 1994).

휴대전화를 다룬 선행 연구에서도 이용과 충족 관점을 바탕으로 논의가 되었다. 배진한(2001)은 휴대전화가 이용자에게는 주는 충족 요인으로 오락, 사교, 거래, 즉시접속, 프라이버시 등을, 또한 관련된 후속 연구에서(배진한, 2002)는 사교, 정보, 거래, 오락, 응급, 안도 등을, 성동규·조윤경(2002)은 사교, 도구, 오락, 자기표현 등을 주요 이용자들의 충족요인으로 나타냈다. 다른 휴대전화 연구들에서도 대부분 이용시간과 개인적 특성 및 이용 동기 등이 주요 예측 변인으로 나오고 있다(박웅기, 2003; 한승수·오경수, 2007). 또한 휴대전화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전화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교, 오락, 정보 등을

4 사회과학논총

충족 요인으로 보고 있다(O'Keefe & Sulanowski, 1995; Williams, Dordick, & Jesuale, 1985).

결국 휴대전화와 매스미디어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이용 동기들을 다시 종합, 분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관습적(ritualistic) 이용과 도구적(instrumental) 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관습적인 동기로서의 미디어 사용을 습관, 시간보내기, 또는 사교로 알아볼 수 있으며 수단적인 동기로서의 미디어 사용은 정보나 흥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Rubin, 1984). 관습적인 동기로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습관적으로 시청하며 텔레비전이라는 매체 자체에 높은 친밀감을 갖고 있으며, 도구적인 동기로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선별적으로 시청하며 내용물 자체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ubin, 1983).

로젠그린과 윈달(Rosengren & Windahl, 1972)은 미디어가 실제적인 상황을 대체할 수 있거나 보완해 줄 수 있을 때 사람들이 미디어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APA(1994)의 심리적 의존과 같이 미디어 의존은 미디어에 대한 높은 친밀도와 많은 노출을 특성으로 한다(Becker & Whitney, 1980; Miller & Reese, 1982).

2.2 SNS 이용

2.2.1 이용패턴

닐슨(Nielsen, 2012)은 미국 PC이용자중 약 20%가, 그리고 모바일 이용시간의 30%가 SNS를 이용하는데 쓴다고 한다. 특히 PC이용시간중 17%가 페이스북을 이용하는데 사용된다고 한다. 특히 PC와 모바일로 접근해서 이용하는 방법중 미국 이용자의 경우 모바일 앱(application)으로 SNS를 이용하는 시간은 2011년 대비 76%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PC에서는 6분13초, 모바일로는 6분 44초, 여성의 경우 PC에서 8분 37초, 모바일로는 9분 43초로 여성 이용자들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이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 별로는 25세에서 34세 연령대들이 평균 9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SNS를 이용하는 이유로써는 실제로 연결된 상대방을 알고 있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보고하고 있다.

2.2.2 SNS 이용 동기

로스와 그의 동료들(Ross et. al., 2009)의 페이스북 관련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이용 동기는 개개인별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과 웬(Kwon & Wen, 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정체성, 높은 이타주의, 그리고 높은 현존감을 느끼거나 가진 사람들이 SNS를 이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김, 김, 그리고 남(Kim, Kim, & Nam, 2010)의 대학생 관련 연구에서는 SNS네트워크 상에서 동일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지를 받는 행동들이 상당히 높은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커(Barker, 2009)의 연구에서도 그룹정체성과 공통적인 자존감이 동질적인 그룹 SNS 사용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청, 치, 그리고 리(Cheung, Chiu, & Lee, 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존재감, 그룹 규범의 공개적인 지지행동, 그리고 개인적 연결과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요인들을 SNS이용 동기들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엘리슨, 스타인필드, 그리고 램페(Ellison, Steinfield, & Lampe, 2007)는 대학생들이 다양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생산하고 유지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와 그의 동료들(Ji et. al., 2010)의 연구에서도 오프라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SNS를 이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슬레드지아노스키와 쿨비왓(Sledgianowski & Kulviwat, 2009)의 연구에서는 즐거움과 유용성이 주요 이용 동기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SNS는 주로 개인 및 사회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오프라인에서의 대인관계를 계속 유지 및 관리하는 목적으로 쓰여 진다고 볼 수 있다.

2.2.3 개인적 성격

이, 이와 권(Lee, Lee, & Kwon)의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사이즈가 크면 이용자의 행복감과 즐거움도 커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내성적인 성격이

나 인생에 대해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이러한 부족감에 대한 보상
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한편 나르시즘에 빠진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더욱
빠져 들 수 있다고 한다(Mehdizadeh, 2010; Buffardi & Campbell, 2008; Zhao,
Grasmuck & Martin, 2008). SNS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표현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심한 성격의 내성적인 사람이나(Amichai-Hamburger
& Vinitzky, 2010) 수줍음을 많이 타는 학생들이(Orr et al., 2009)들이 많은
시간을 SNS 이용에 활용하고 또한 많은 SNS친구들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호주에서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외향적이고 성격적
으로 덜 신중한 학생들이 SNS를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Wilson, Fornasier, & White, 2010).

결론적으로 사회적 면대면 관계가 얼굴을 마주 보며 대화를 하며, 물리적인
거리를 요구하는 상황들을 요구하는 반면, SNS는 그러한 스트레스 없이 상당
히 쉽게 접근이 용이하며 친구 관계를 유지 및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많다. 즉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SNS를 보완적 목적으로 사용하며,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나 가치의 상승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4 스마트폰을 통한 SNS 이용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것을 종합해보면 모든 연구들이 이용의 도구로서 보
상을 주된 요인으로 삼고 있으며 관습적이며 도구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핀(Finn, 1922), 호바스(Horvath, 1999), 그리고 루빈(Rubin,
1984)은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 범주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첫 번째
로는 습관적인 이용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무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일수록 습관, 사교, 휴식
및 도피 등의 목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밝혔다(Anderson et al., 1996; Conway
& Rubin, 1991; Kubey & Csikszentmihalyi, 1990; Morgan, 1984). 또한 스마트
폰을 통한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은 이미 중요한 청소년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
리 잡고 있다(서지혜, 2012). 선행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해

본다.

III. 연구문제 제시

기존의 토의되었던 문헌연구와 모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들을 제기하였다.

연구문제 1: 인스타그램 이용은 크기는 이용자의 정보추구 욕구로 더 잘 설명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인스타그램 이용은 관계 맺기 활동은 동일한 집단과의 관계 맺기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IV. 연구방법

4.1 평가 대상 설정 및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이용패턴을 알기위해 스마트폰을 통해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수도권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소재 대학생 남녀를 표본으로 20부의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본 조사는 구글의 모바일/스마트폰 설문을 통해서 2020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1월14일 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수도권소재 사립 대학교 대학생들로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었다. 설문지 회수방법은 모바일 방식을 통해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67명의 표본이 설문조사 분석용으로 사용되었다. 조사 집단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 조사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대학생(18~27세)			
구분		N	%
성별	남	38	56.6
	여	29	43.4

응답자들은 기존의 인스타그램 이용시간 문항 이외에 정보 공개 활동(7문항), 관계 맺기(11문항), 정보추구(5문항), 등 23개 문항에 응답했다. 총 67건의 응답이 활용되었다. 조사에서 얻어진 측정 자료의 신뢰도는 각 측정 변인에 대한 크론바흐(Cronbach)의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검토해 보았다.

4.2 설문 의 구성 및 주요 변인의 측정/검사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학에서의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인스타그램 이용에 관한 항목들을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들은 라이커트형(Likert-type) 5점 척도로 작성하게 답하도록 하였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4.2.1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팔로워: 게시자(특정 개인/이용자)를 추종/따라하는 이용자의 총량

인스타그램 팔로잉: 게시자(특정 개인/이용자)가 타자를 추종/따라하는 이용자의 총량

인스타그램 게시활동(broadcasting/posting): 게시자(특정 개인/이용자)가

실제 인스타그램을 이용/사용하면서 하는 다양한 활동 등을 다음과 같이 하는지

4.2.2 정보공개 활동

- 1) 뉴스를 게시하거나 다른 뉴스를 가져오는 행위
- 2) 자신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
- 3)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
- 4) 자신의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 5)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 6)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댓글이나 표현을 하는 행위
- 7)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게시하거나 표현을 하는 행위

4.2.3 정보 추구활동

- 1) 다른 미디어 사이트와 링크/연결하는 행위
- 2) 사이트에 올라온 뉴스를 읽거나 보는 행위
- 3) 정치인, 유명 연예인, 유명 스포츠 스타가 올린 정보를 읽거나 보는 행위
- 4) 유용한 쇼핑 정보를 찾는 행위
- 5) 유용한 정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행위

4.2.4 관계유지 활동

- 1) 자신의 사진/동영상이나 지인의 사진/동영상을 올리는 행위
- 2) 가족들과 만남 유지 행위
- 3) 친한 친구들과 만남 유지 행위
- 4) 연락이 단절된 친구들과 만남 유지 행위
- 5) 새로운 친구 사귀기
- 6) 나의 취미/흥미 비슷한 사람들과 만남 행위
- 7) 연애 상대 찾기
- 8) 댓글을 달거나 친구가 올린 정보 공유 행위

- 9) 친구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
- 10) 글, 사진, 영상에 태그를 하는 행위
- 11) 다른 사람으로부터 응원의 메시지를 받는 행위

후속분석을 위해 22개의 항목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신뢰도(Cronbach's α)를 살펴본 결과, 정보공개(.798), 정보추구(.809), 관계 맺기(.848)로 나타나 분석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V. 연구 결과

변인들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s)를 시행했다. 그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이용시간 정보추구, 정보추구와 관계 맺기가 긍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표 2>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나이	이용시간	정보 공개	정보 추구	관계 맺기
나이	-				
이용시간	.008	-			
정보공개	.041	.074	-		
정보추구	.053	.211*	.061	-	
관계맺기	.004	.079	.23	.410*	-

(N = 67): * $p < .05$; ** $p < .01$

VI. 결론 및 제언

6.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국내의 대학생들이 인스타그램을 과연 SNS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작했다. 이런 맥락에서 짧은 기간 내에 사람

들에게 필수적인 매체로 자리 잡은 인스타그램 이용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많은 함의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단 이용시간은 정보추구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정보추구는 관계 맺기와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났다. 반면 정보공개는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인스타그램이 이용이 상당히 ‘목적 지향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6.2 앞으로의 연구 및 함의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에 관한 탐색적 성격이 강하므로 미래의 연구에서는 여러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이용량에 관한 방법론적 문제이다. 각 연구마다 모집단이나 샘플 추출에 따라 평균이용시간이 다르게 나오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추후의 통계적 연구는 사용량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을 연구내용에 적합하게 부분적 또는 포괄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사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서 변인을 ‘정보추구’와 ‘관계 맺기’ 등으로 선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는 다른 변인들이 중독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만 관찰했지만, 각 SNS별로 특징이 존재할 수도 있으며,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틱톡’과 같은 형태도 관찰이 필요할 듯하다.

나날이 발전해가고 변화하고 있는 SNS의 기술과 이용확산으로 인해 사회과학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함의 및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박웅기(2003). 대학생들의 이동 전화 중독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7권2호, 250-281.

배진한(2001). 이동 전화의 중독과 대인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이동 전화의 적합성 인식: 세대 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5권 4호, 160-188.

_____(2002). 전화의 이용과 중독 그리고 대인매체로서의 전화의 속성: 이동 전화, 면대면 채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8권, 128-160.

이창호(2012).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양적연구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정책세미나』. 2-30.

서지혜(2012). 고등학생의 개인, 부모, 또래 및 스마트폰 이용동기요인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구조적 관계분석,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성동규·조운경(2002). 이동 전화 이용자의 집단적 특징에 따른 이용 유형 연구. 『한국언론학보』, 46권6호, 153-190.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 SNS 이용 현황. KISDI STAT Report.

_____(2019).

<https://www.gov.kr/portal/gvrnReport/view/H1910000000124950?policyType=G00302&srchTxt=>

SK텔레콤(2012). <http://www.sktelecom.com>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michai-Hamburger, A. W., & Vinitzky, G. (2010). Social network use and personality. Computer & Human Behavior(26), 1289-1295.

Barker, V. (2009). Older adolescents' motivations for social network site use: The influence of gender, group identity, and collective self-esteem. CyberPsychological Behavior(12), 209-213.

Becker, L. B., & Whitney, D. C. (1980). Effects of media dependence: Audience assessment of government. Communication Research, 7, 95-120.

Buffardi, E. L., & Campbell, W. K. (2008). Narcissism and social networking web sites.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ical Behavior*(34), 1303-1314.

Cacioppo, J. T., Petty, R. E., & Kao, C. F. (1984). The efficient assessment of need for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306-307.

Cheung, C. M. K., Chiu, P-Y., & Lee, M. K. O. (2010). Online social networks: Why do students use facebook? *Computer Human Behavior*(27), 1337-1343.

comScore(2013). Time spent on iOS & Android connected devices. <http://www.comscore.com>

Conway, J. C., & Rubin, A. M. (1991). Psychological predictors of television viewing motivation. *Communication Research*, 18, 443-463.

Ellison, N. B., Steinfield, C., & Lampe, C. (2007).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Social capital and college students’ use online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12).

<http://jcmc.indiana.edu/vol12/issue4/ellison.html>.

Finn, S. (1992). Television “addiction?”: An evaluation of competing media use models. *Journalism Quarterly*, 69, 422-435.

Haddock, B. D., & Beto, D. R. (1988). Assessment of drug and alcohol problems: A probation model. *Federal Probation*, 52, 10-16.

Horvath, C. L. (1999). Psychological addiction to television: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Ji, Y. G., Hwango, H., Yi, J. S., R, P. L. P., Fang, X. W., & Ling, C. (2010). The influence of cultural differences on the use of social network services and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Internal Journal of Human-Computer Interaction*(26), 1100-1121.

Kim, J. H., Kim, M. S., & Nam, Y. (2010). An analysis of self-construals, motivations, Facebook use, and user satisf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Interaction*(26), 1077-1099.

KOSIS(2020). 이동 전화 가입자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A10

Kubey, R. W. (1996). Television dependence, diagnosis, and prevention. In T. M. MacBeth (Ed.), *Tuning in to young viewers* (pp. 221-160). Thousand Oaks, CA: Sage.

Kubey, R., & Csikszentmihalyi, M. (1990). *Television and the quality of life: How viewing shapes everyday experienc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Kwon, O., & Wen, Y. (2010). An empirical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social network service use. *Computer Human Behavior*(26), 254-263.

Lee, G. , Lee, J., & Kwon, S. (2011). Use of social-networking sites and subjective well-being: A study in South Korea. *Cyberpsychological Behavior and Social Network*(14), 151-155.

McQuail, D., Blumler, J. G., & Brown, J. R. (1972). The television audience: A revised perspective. In D. McQuail (Ed.), *Sociology of mass communications* (pp. 166-194).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Miller, M. M., & Reese, S. D. (1982). Media dependence as interaction: Effects of exposure and reliance on political activity and efficacy. *Communication Research*, 9, 227-248.

Morgan, M. (1984). Heavy television viewing and perceived quality of life. *Journalism Quarterly*, 61, 499-504.

Mehdizadeh, S. (2010). Self-presentation 2.0: Narcissism and self-esteem on facebook. *Cyberpsychological Behavior & Social Network*(13), 357-364.

Nielsen(2012). *State of the Media: The Social Media Report*. Available online: <http://www.nielsen.com>

O'Keefe, G., & Sulanowski, B. (1995). More than just talk: Uses, gratifications and the telephone.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2(4), 922-933.

Orr, E. S., Ross, C., Simmering, M. G., Arseneault, J. M., & Orr, R. R. (2009). *CyberPsychological Behavior*(12), 337-340.

Phillips, C. A., Rolls, S., Rouse, A., & Griffiths, M. D. (1995). Home video

game playing in school children: A study of incidence and patterns of play. *Journal of Adolescence*, 18, 687-691.

Rosengren, K., & Windahl, S. (1972). Mass media consumption as a functional alternative. In D. McQuail (Ed.), *Sociology of mass communication* (pp. 166-194).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Ross, C., Orr, E. S., Sisic, M., Arseneault, J. M., Simmering, M.G., & Orr, R. R. (2009). Personality and motivations associated with the Facebook use. *Computer Human Behavior*(25), 578-586.

Rubin, A. M. (1983). Television uses and gratifications: The interactions of viewing patterns and motivations. *Journal of Broadcasting*, 27, 37-51.

Rubin, A. M. (1994). Media uses and effects: A uses-and-gratifications perspective. In J. Bryant & D. Zillmann (Eds.),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pp. 417-43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Sledgianowski, D. & Kulviwat, S. (2009). Using social network sites: The effects of playfulness, critical mass and trust in a hedonistic context. *Journal of Computer Information System*(49), 74-83.

Stein, D. J., Black, D. W., Shapira, N. A., & Spitzer, R. L. (2001). Hypersexual disorder and preoccupation with Internet pornograph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 1590-1594.

Willams, F, Dordick, H., & Jesuale, N. (1985). Focus group and questionnaire development for exploring attitudes toward telephone service. In F. Williams (Ed.), *Social Research and the Telephone* (pp. 249-268). L.A. : Herbert Dordick Associates.

Wilson, K., Fornasier, S., & White, K. M. (2010). Psycholgocial predictors of young adults' 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Cyberpsychological Behavior & Social Network*(13), 173-177.

Zhao, S. Y., Gramsmuck, S., & Martin, J. (2008). Identity construction on Facebook: Digital empowerment in anchored relationships. *Computer & Human Behavior*(24), 1816-1836.

<Abstract>

An explorative study on Korean college students' Instagram usage: from relationship maintenance to information seeking

Park, Woong Ki*

This research examined Korea's college students Instagram usage via smartphones.

The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variables such as information seeking and need relationship maintenance may predict future Instagram usage behaviors.

Key words: Instagram, uses and gratifications, relationship

* Professor, Department of Journalism, Advertising & PR, Soongsil University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 유형과 삶의 질의 관계: 여가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진아*

【목차】

- I. 서론
- II. 문헌고찰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및 제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별 사회복지사들이 겪고 있는 직무스트레스 유형을 파악하고 각각의 직무스트레스가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여가활동이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종사영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관을 이용시설, 생활시설, 기타 사회복지기관으로 구분하여 표본을 할당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전국의 사회복지사 301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네이버 오피스(Naver office) 시스템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수집되었다. 그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별 사회복지사들이 겪고 있는 직무스트레스 유형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석사.

둘째,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유형은 직무요구, 직무자율성결여, 관계갈등, 보상부적절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여가활동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각각의 서로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삶의 질이 중요한 이슈로 언급되면서 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이소현·김민수·김희웅, 2019; 최문종·이동하·안현숙, 2014). 삶의 질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노유자, 1988; 정유준, 2016)이나 과거, 현재, 미래의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안녕(정유준, 2016; 한석태, 2008)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오늘날 삶의 질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언론과 일상생활에서 일명 ‘워라밸’이라는 용어가 흔히 언급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김경은, 2017; 김세호, 2018; 민경선, 2018; 박근혜, 2018; 조태성, 2018; 한선미, 2017;).

‘워라밸’이란 ‘Work-Life Balance(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로, 일과 여가활동의 균형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워라밸’이란 용어를 우리사회에서 흔히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일 못지않게 일상생활에서 여가활동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민경선, 2018; 유홍준·신인철·정태인, 2018). 하지만 수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김민정·김영우·김아래미·김진석, 2017; 김제선, 2013; 전해민·박병선, 2013)로 사회복지사들이 ‘워라밸’을 실천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사회복지시설 중 약 67.9%가 24시간 서비스를 위한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회복지사는 법정근로시간보다 100시간 정도 많은 279시간

을 평균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철선·민동선·정숙희·최기정, 2018).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사업지침으로 설정된 월평균 40시간 이 외에 약 60시간 정도 추가근무 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추가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다(이철선·민동선·정숙희·최기정, 2018). 또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와의 과업수행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자원으로 인한 저임금, 불만족스러운 복리후생, 과도한 업무 등으로(김제선·유재운·김효정, 2012; 채구목, 2003) 심한 직무스트레스를 받고 있다(장경은·배기효·신지연, 2013).

실제로 2013년에 과도한 업무와 조직문화의 스트레스로 인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명이 연이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전진호, 웰페어뉴스, 2018.06.05.). 이뿐만 아니라, 김자영 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응답자 1,429명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중 961명(67.2%)이 클라이언트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복지사는 대개 업무량이 과다하거나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으며(성희자·권현수, 2013; 윤경아·심우찬·김기수, 2015; Duffy et al., 2003),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업무 특성상 많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김정은·성희자, 2013).

이와 같은 저임금, 장시간 근무, 클라이언트의 폭행 등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은 사회복지사가 ‘위라벨’을 실천하기에 금전적, 시간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한다(윤경아·심우찬·김기수, 2015). 이는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 관리는 서비스의 질 유지와 향상을 위한 기본 토대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윤경아·심우찬·김기수, 2015).

한편, 여가활동을 통해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다양한 사례들은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이성철, 2019; 채진, 2015). 여가활동은 신체적·사회적·심리적 질을 높이고 개인의 행복,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주장되고 있다(장훈·김우정·허태균, 2012).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효과를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신체적 측면에서 여가활동은 규칙적이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뇌, 심장, 근육, 순환계, 호흡 등에 자극을 주어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이를 통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스트레스 또한 치유할 수 있다(서여주, 2018; 송강영, 1999).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여가활동은 정서적 유대를 조성하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인 개인이 다른 사회 구성원과 공존하도록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창출하고 이를 강화함으로써 원만한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여가활동은 상이한 이해와 개성을 지닌 이질적인 유기체를 공동체로 융화·화합시키는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전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서여주, 2018; 송강영, 1999).

마지막으로, 심리적 측면에서 여가활동은 일반적으로 긴장 및 좌절, 공격성과 같은 파괴적 본능을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분출시킬 수 있는 수용력을 지니고 있다. 파괴적 본능을 무해한 방향으로 분출시키지 않는다면 자신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심리·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잠재적으로 신체적 가해의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여가활동은 이와 같은 극단적 감정인 좌절, 미움, 슬픔 등 정서적 양극을 분출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서여주, 2018; 이흥구, 1998).

또한 여가를 적절히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긍정적 경험을 더 많이 하며 삶의 만족도 역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다(민경선, 2018; 유홍준·신인철·정태인, 2018). 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에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심리상태가 유발되어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고 분석된다(권상희·홍종배, 2009; 민경선, 2018).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가활동이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장훈·김우정·허태균, 2012).

최근 들어 사회복지사의 삶의 만족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고는 있지만 이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 관한 연구(박민수·정소희, 2019)로 직무스트레스가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또한 선행 연구 대부분 직무스트레스와 급여, 소진, 직무만족도, 이직의 관계에 관한 연구(김정은·성희자, 2013)로 그쳤으며,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노동 강도와 노동량 대비 적정 임금의 논의로만 한정하여 삶의 질의 측면은 무시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신혜종·이혁수, 2015; Bauman & Bordoni, 2014). 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

에 관한 선행연구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만 연구가 이루어져왔다(박민수·정소희, 2019). 더 나아가 사회복지 분야별 사회복지사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는 다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선행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직무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여가활동이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각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행연구(노주란·최은아, 2018; 박순미·문수열, 2019; 유재두, 2020; 이지영·김성원·김진원, 2017; 최웅렬·김종길, 2011)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받는 사회복지사가 건전한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안병훈,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여가활동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분야별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직무스트레스를 겪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며 각각의 직무스트레스 유형이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여가활동이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여가활동 참여가 사회복지사의 스트레스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사회복지사의 스트레스 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분야별 사회복지사가 겪고 있는 직무스트레스 유형을 파악하고, 각각의 직무스트레스 유형이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가활동이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 조절변수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검증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스트레스 관리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목적1]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여가활동 참여 현황을 확인한다.

[연구목적2] 사회복지분야별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연구목적3]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연구목적4]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는 여가활동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II. 문헌고찰

2.1 직무스트레스의 개념과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

2.1.1 직무스트레스의 개념

직무스트레스란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들로 인하여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그리고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와 관련하여 조직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욕구 사이에 불균형이 생길 때 일어난다. 그 원인으로 조직관련 스트레스 요인, 직무관련 스트레스 요인, 개인관련 스트레스 요인, 물리적 환경, 그리고 조직 외 관련 스트레스 요인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김홍조, 2018; HRD 용어사전, 2010).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관점은 상호작용 스트레스, 자극 스트레스, 반응 스트레스 등으로 구분한다. 상호작용 스트레스 관점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결과로써의 스트레스에 초점을 둔다. 자극 스트레스 관점은 스트레스를 물리적·심리적 위협이 동시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작업환경에서의 스트레스에 초점을 둔다. 반응 스트레스 관점은 생리학·생물학, 감정적·행동적 항상성 기능의 변경이나 붕괴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에 초점을 둔다(김동규, 2020; 정동화, 2010).

더 나아가, 백대현과 이재완(2018)의 연구에 따르면 직무스트레스의 정의 또한 다양한 관점에 따라 그 범위와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직무스트레스를 단순히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외부자극으로 규정하는 관점이다.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에게 위협을 주는 특정한 형태의 업무환경을 의미하며 (Caplan et al., 1975), 부정적 직무환경으로 업무 모호성, 역할갈등, 열악한 근무조건, 과중한 업무 등을 제시하고 있다(Cooper & Marshall, 1976).

둘째, 직무스트레스를 외부환경에 대한 개인의 신체적·심리적·행태적 반응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Schuler, 1980). 즉, 직무스트레스를 외부환경의 요구에 대한 개인의 비특이적 반응으로 이해하는 것이다(Selye, 1956). 대개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요구에 대한 개인적 능력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발생하게 되는데 (McGrath, 1976), 업무와 관련된 어떠한 요인으로 근로자가 신체적, 심리적 반응을 보이며 정상적으로 업무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양대현, 2019; Beehr & Newman, 1978).

이처럼 학자마다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정의는 조금씩 상이하지만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이 직무요구와 불일치하거나, 또는 직무환경 측면에서 개인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양대현, 2019; French, Rogers, & Cobb, 1974). 둘째,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와 관련된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고, 이것을 인지하게 되며 받는 스트레스라는 것이다. 즉,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직접적인 직무 관련 요인 이외에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를 포함한다(Hunter & Thatcher, 2007). 셋째, 직무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과 조직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식된다는 것이다(Beehr & Newman, 1978; Parker & DeCotiis, 1983). 즉, 특정한 직무 요인이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개인적 성격이 항상 직무스트레스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 다른 조직구성원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직무스트레스를 인식한다(이동환, 2018; Latack, 1986; Zohar).

국의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자들 또한 직무스트레스란 근로자의 능력 또는 자원 요구와 직무 요구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유해한 정신적, 신체적 반응으로 정의하였으며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김사라, 2019; 선종욱·오병섭·황덕수·김종윤, 2010). 박인실과 김미정(2016)은 직무스트레스를 직책을 갖고 담당하게 된 일에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심리적 혹은 신체적 긴장을 갖은

상태로 정의하였다.

배점모(2013)는 직무스트레스를 직무환경으로 인해 조직구성원의 신체적, 심리적, 행태적 일탈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김춘일(2012)은 직무스트레스를 직무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을 유발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양안숙(2008)은 직무스트레스를 환경적 자극요인과 개인의 특이한 반응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로 정의하였으며, 장세진 외(2005)는 직무스트레스를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생체에 가해지는 정신적, 육체적 자극에 대해 체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생물학적, 행동적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는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또한 연구되어져왔다. McGrath(1976)는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을 과업요인, 역할요인, 행동적 상황요인, 물리적 상황요인, 사회적 상황요인, 개인요인으로 구분하였고, Schuler(1980)는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을 조직속성과 개인속성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조직속성의 예로 리더십, 조직구조, 대인관계, 직무특성 등이 있고, 개인속성의 예로 개인의 요구, 능력, 경험, 성격 등을 들 수 있다(이동환, 2018, 재인용).

Parker와 Decotiis(1983)는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을 직무내용과 조직특성, 인간관계, 조직 내 역할, 경력개발, 책임성, 외적몰입으로 구분하였고(이동환, 2018, 재인용), Hendrix 외(1985) 역시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을 역할보호성, 역할갈등, 역할과다, 원치 않는 시간의 근무, 조직풍토, 커뮤니케이션의 결여, 집단 간 갈등과 같은 조직 내 요인, 노동시장 실업률, 사회적 후원과 같은 조직 외 요인 그리고 통제의 위치, 연령, 성격 등 개인과 관련한 요인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전혜진, 2016, 재인용).

박웅열(2010)은 학자별로 분류한 스트레스 유발요인을 검토한 후 스트레스 유발요인을 조직 관련 요인, 조직 외적 관련 요인, 직무 관련 요인, 개인 관련 요인, 물리적 환경 관련 요인, 역할 관련 요인으로 정리하였다. 더 나아가,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경력개발의 부족, 직무 및 조직특성, 내적 통제, 지각된 통제감, 사회적지지, 멘토링, 조직혁신에 대한 지각 외에도 역할과 관련된 요인들을 들 수 있다. 특히, 어떠한 역할 관련 요인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역할갈등과 역할보호성이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과 관

련되어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2.1.2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

돌봄을 제공하는 휴먼서비스 종사자는 공통적으로 극심한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린다(이명신, 2004). 특히 휴먼서비스 종사자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한다(김민주, 2005). 또한, 감정을 다루고 거래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과부하, 감정억제 등으로 인해 휴먼서비스 종사자는 높은 수준의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한다(김성진·홍창희, 2014; 박봉규, 2008; 이정은·신재은·김명숙·조문한·이인재, 2016; 이지민·이지영, 2007).

휴먼서비스 종사자가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로는 첫째, 부정적정서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직무스트레스이다. 휴먼서비스 종사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누적되었을 경우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Bogner & Wouters, 1990; Hochschild, 1983). 둘째, 감정표현의 억제로부터 오는 직무스트레스이다. 휴먼서비스 종사자는 고객과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쉽게 경험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요구나 대우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억제하도록 요구된다(강재호, 2007; 정태욱, 2013).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은 심리적 안녕감을 떨어뜨리고(오진아, 2013) 사회적 회피 또는 비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일으킨다(Novaco, 1979). 마지막으로, 높은 수준의 불안으로부터 오는 직무스트레스이다. 휴먼서비스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신체적 폭행, 욕설을 포함한 폭언을 경험하거나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어 불안증상에 취약해질 수 있다(이정은 외, 2016).

한편, 사회복지사는 휴먼서비스 전문가로서 타인을 위해 대인서비스를 수행하는 동시에 봉사자라는 이미지로 인식되어 자신의 삶보다 타인의 행복한 삶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한다는 암묵적인 사회의 요구를 받는다(김여민·강경선, 2017; 문승연, 2012). 이처럼 휴먼서비스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는 일반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Wieclaw, Agerbo, Mortensen, & Bonde, 2006), 클라이언트의 다차원적 문제 상황에 깊이 관여되면서 스트레스가 높은 직종 중 하나로 간주된다(최문경·정영주·문경원·신원식, 2020;

Blomberg, Kalio, Kroll, & Saarinen,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는 직무스트레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김여민·강경선, 2017; 송유미, 2006; 신성철·이종춘, 2014). 사회복지사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속적인 사회적 변화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는 복지 대상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민원률 증가와 이에 따른 대응 방식의 무력화, 사회복지 기관간의 경쟁과 성과급제, 그리고 상위기관의 효율성 강화 등 다양한 형태로 압박을 체감하고 있다(김기현, 2019).

오늘날 복지국가에 들어서면서 사회복지지는 외형적으로는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문제와 낮은 급여 등 열악한 근무환경은 영리기업의 평균 급여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성과지향적 태도 등은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기현, 2019).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 유발원인을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환경은 직위, 업무형태, 근무형태, 정규휴식시간,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여부, 복지시설 유형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규휴식시간은 직무스트레스를 낮추는 요인으로, 겸임업무와 장시간 근무시간 등 업무과다가 직무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김명희·양혜진, 2007; 김정은·성희자, 2013; 신혜중·이혁수, 2015; 정유선, 2008; 최수찬·김상아·이정은·박웅섭, 2007; 최수찬·김상아·허영혜·박웅섭, 2008).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사회복지사의 건강과 직무만족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업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Edwards, Hannigan, Fothergill, & Burnard, 2002). 즉, 직무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 및 소화기 질환을 비롯한 스트레스 관련 질병을 야기하여(김영희 외, 2000; 조정진, 2002) 사회복지사 개인에게 직접적인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불안(최영수 외, 2004; Jones, Fletcher, & Ibbetson, 1991; Thompson, Stradling, Murphy, & O'neil, 1996), 정신과적 질환 및 수면장애(김영희 외, 2000; Caughey, 1996; Jones, Fletcher, & Ibbetson, 1991), 소진(Gibson, McGrath, & Reid, 1989; Bradley & Sutherland, 1995; Martin & Schinke, 1998), 직무 불만족(Prosser et al., 1999), 이직(Himle, Jayaratne, & Thyness, 1986; Gibson, McGrath, &

Reid, 1989)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기관업무의 효과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기관 내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최수찬 외, 2008; Benbow, 1998).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유형에 관한 연구(최문경·정영주·문경원·신원식, 2020)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네 가지 인식유형이 존재한다. 첫째, ‘업무과다-전문직 정체성 혼란형’이다. 이 유형의 사회복지사는 계획되지 않은 업무가 과도하게 주어지고, 직위가 경력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고, 현재의 업무가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한다. 업무분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지시, 상사의 동시다발적이거나 일관성 없는 업무지시, 특히 업무수행에 필요한 개인적인 노력에 대한 낮은 부담은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모호함으로 이어진다. 반면에, 직장생활의 고충을 함께 나눌 동료가 있고 모든 직원은 한마음으로 일하며 충분한 휴식이 주어진다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둘째, ‘근무환경 열악-미래비전 불투명형’이다. 이 유형의 사회복지사는 직장 동료들과의 상호관계는 원만하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능력을 개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직업유지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한다. 즉, 고용불안,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불투명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되지 못한다고 인식한다. 반면에 조직구성원 모두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 및 동료와 관련해서는 안정성과 만족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유형이다(최문경·정영주·문경원·신원식, 2020).

셋째, ‘능력개발 기회부족-자율성 부족형’이다. 이 유형의 사회복지사는 기준이나 일관성 없는 업무지시를 받으며, 직업이 평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전문직으로서의 능력개발 기회와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한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로 업무에 대한 질적 향상과 전문가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동기부여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조직의 직원들의 근무평가기준과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 인편이라고 인식하는 유형이다(최문경·정영주·문경원·신원식, 2020).

넷째, ‘업무 범위 광대-직무몰입 저해형’이다. 이 유형의 사회복지사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하며, 미래 비전이 불투명하다고 인식한다. 계획에 없던 업무가 부가적으로 주어져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 일

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며, 불확실한 미래 비전 때문에 근무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상사와 동료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주며 성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현재 하고 있는 위험하지 않아 사고를 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인식하는 유형이다(최문경·정영주·문경원·신원식, 2020).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회복지사는 대인 접촉 빈도가 높은 직종으로(문영주, 2014), 다른 직종과는 다르게 감정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높은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린다(어홍선·이종숙, 2020). 또한,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사회복지사의 직무몰입 저해, 과도한 업무 요구, 불투명한 미래에서 오는 불안감 등으로 직무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킨다. 반면에, 상사 및 동료들과 한마음으로 일하며 상호관계가 원만하여 조직구성원에게 만족도가 높다면 이는 직무스트레스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삶의 질의 개념과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

2.2.1 삶의 질의 개념

OECD(2011)에 의하면 삶의 질은 다차원적이며 개인의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결정된다. 특히, 일과 삶의 균형,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교육과 기술, 환경의 질,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주관적 웰빙, 개인 안전 등을 포함하는 삶의 질과 일과 근로소득, 주택, 소득과 부 등을 포함하는 물리적 삶의 조건들이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다(임준홍·김한수·홍성호, 2020).

이처럼 삶의 질의 개념은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속성을 지닌 다차원적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은 안녕, 복지, 만족도, 행복감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김형수·김용섭, 2011). 삶의 질의 개념은 객관적 관점, 주관적 관점, 통합적 관점으로 구분된다.

첫째, 객관적 관점은 개인의 만족스러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삶의 조건의 측면에서 접근한 관점이다. 둘째, 주관적 관점은 삶의 질을 주로 심리적인 만족감 등 주관적이고 가치판단적인 특성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즉,

자아 내부에서 삶의 질을 찾고 이를 행복감 또는 만족감의 차원으로 양화하려는 관점이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관점은 경제성장, 과학기술의 발달, 쾌적한 환경, 편리한 교통과 같은 외형적인 생활 상태와 내면의 심리 모두 포괄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이는 삶의 질을 만족과 행복의 상태를 지칭하는 동시에 물질적인 측면과 아울러 복지나 정신건강 요소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다양한 견해를 종합하였을 때, 삶의 질은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박대식·마상진, 2007).

한편, 학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연구진들은 개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에서 자신의 기대, 목표, 관심, 규범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지각으로 개인의 사회적 관계, 환경의 두드러진 특성, 신체적 건강, 심리적 상태, 독립성 정도의 관계에 의해 복잡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WHQOL group, 1995; 박경옥·김지연, 2017, 재인용).

Clipp(2002)는 삶의 질은 일반적인 개인의 경험을 포함한 신체적 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적 영역의 안녕 상태라고 정의하였으며(이명희, 2020, 재인용), Bowling 외(2003)는 삶의 질은 개인의 가치와 경험, 건강과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정의하였다(박선태, 2012; 문형란, 2016, 재인용). Diener 외(2003)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감정적, 인지적 평가로 정의하였고, Kane(2003)은 건강을 포함한 개인의 삶의 다방면에 대한 다차원적인 평가로 정의하였다.

Deci와 Ryan(2008)은 개인이 느끼는 삶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긍정적 감정과 낮은 수준의 부정적 감정 그리고 높은 수준의 만족으로 정의하였으며, Michalko와 Ratz(2010)은 자신의 삶에 대한 지각된 만족의 평가라고 정의하였다(김진완, 2016, 재인용). Fayers와 Machin(2013)은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반적 건강, 신체기능, 인지기능, 역할기능, 사회기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Riberio 외(2018)는 개인의 목표, 관점, 기준, 관심을 포함하며 문화와 가치체계의 맥락에서 개인의 삶의 위치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국내연구에 있어서도 삶의 질을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여 정의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최수정(2000)은 삶의 질을 개인이 경험한 영역에 대한 주관

적인 만족감으로 정의하였다. 김애련(2001)은 삶의 질을 개인의 건강, 심리적 자원, 사회적 자원,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느끼는 심리적 복지감을 삶의 질로 정의하였으며, 민경진(2007)은 삶의 질을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을 삶의 질로 정의하였다. 신경인(2009)은 삶의 질을 개개인이 지각하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삶의 안녕감, 만족감으로 정의하였고 최홍권(2010)은 삶의 질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정도라고 하였다.

이처럼 학자들마다 정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에서 공통적으로 정의되어온 삶의 질은 개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행복감, 주관적 안녕감이라 할 수 있다(이윤경, 2018; Evans, 1994; Lehman, 1983; Smith, 1995)

더 나아가, 삶의 질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욕구단계이론, 목표이론, 활동이론 등이 있다. 첫째, 욕구단계이론은 대부분의 인간행동은 개인의 삶을 의미 있고 값지게 만드는 개인의 목표추구 경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둘째, 목표이론은 주관적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욕구가 성취되었을 때 혹은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행복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행복이란 개인의 욕구충족과 목표달성 그 자체에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노유자, 1988; 정민, 2017). 마지막으로, 활동이론은 인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복을 얻는다는 이론이다. 활동이론에 따르면 행복은 올바르게 수행된 활동에서 오는 것이며 여기에서 의미하는 활동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수한 방식으로 발휘하는 바람직한 활동을 말한다. 현대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취미, 오락, 사회적 상호작용, 스포츠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정민, 2017; 황주연, 2007).

또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하향확산이론과 상향확산이론이 있다. Sirgy(2001)는 삶의 질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성향(기질, 특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는 하향확산이론과 개인이 가정, 사회, 공동체 등에 관한 주관적이고 인지적인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상향확산이론을 설명하였다. 하향확산이론과 상향확산이론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이 어디서부터 기원하는지에 대해 각기 다른 설명을 하고 있으나, 향후 이러한 이론을 받아들인 선행연구들에서는 두 이론이 서로 보완적이

거나 상호작용한다고 보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최선미·김정숙, 2020; Drobnič et al., 2010; Macías et al., 2016; Green & Cooper, 2000).

2.2.2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는 양적인 확대를 포함하여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그 중심축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역량강화 및 사회적 기능 증진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즉,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인서비스 기능을 수행해오면서 사회복지사의 고유한 역할을 확립해가고 있다(강철희·최명민, 2007; 주옥남·문승연, 2014). 이처럼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인서비스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지만 실제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저조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에 관해 이루어지는 연구는 매우 미비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영역에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클라이언트에 관한 연구로 기울여왔다(김효선·조주복, 2020). 이는 사회복지사를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로만 인식되었을 뿐 그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김리원, 2019; 장세중, 2011). 임정기(2019)의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감정노동자’, ‘이용자들보다 더 약한 존재’, ‘사회적 약자’로 표현하였으며 사회복지사를 그저 ‘사람’, ‘똑같은 사람’이라고 항변하고 싶어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사를 그저 서비스 제공자로 보아 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를 서비스 제공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김효선·조주복, 2020).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9)에서 사회복지사 3,256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나는 현재 삶에 만족한다’는 문항이 100점 만점에 평균 64.17점으로 그리 높지 않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에 서동명 외(2018)는 사회복지사의 삶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현재 업무가 무리하게 부여되고 과도한 근로시간을 근무하는 사회복지현장의

근로실태를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현장이 되도록 인력확충과 법령개정작업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양한 신변안전 위협과 관련한 입법, 법률제정, 그리고 기관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개선 및 지원책 마련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를 위한 상담센터운영과 상담 지원체계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지원하며 법률지원서비스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직무만족이라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여러 변인들 중 직무만족이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김효선·조주복, 2020; 류성봉, 2013). 직무만족은 직무의 성질 또는 조직의 특성(급여, 근무조건, 감독)에 따라 결정되며(윤기웅·제갈돈·김병규, 2017),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피로도는 직무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종규·차길수, 2018).

김영혜 외(2007)가 보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교대근무가 불안감, 서글픔, 주변사람들과의 이질감, 메말라가는 정서, 건강염려 등을 유발하고 근로자의 규칙적인 생활을 어렵게 하며,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삶을 위축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교대근무가 근로자의 생활패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친구, 가족 등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만들며, 높은 심리사회적 피해의식이 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기관 중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교대근무 형태는 절반 이상인 약 57%인 절반이상이 1일 2교대 및 격일제로, 다수의 생활시설은 1일 12시간~24시간 교대근무 구조로 인해 법정 근로시간이 준수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복지시설 현장에 비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비율과 지급 수준은 저조하고 유급휴가 근로수당이 지원되지 않는(김유경, 2018) 등 사회복지사는 직무만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직무환경에 놓여있다. 이렇듯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무환경은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직무만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직무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무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김효선·조주복, 2020).

2.3. 여가활동의 개념과 사회복지사의 여가활동

2.3.1 여가활동의 개념

여가활동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여가활동은 일상생활에서 누적된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풀어주고 기분전환과 재충전의 계기가 되어 노동에 대한 활력소를 제공해 준다(임사라·박세영, 2012). 또한 적절한 여가활동은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인지 및 인성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양진연, 2017). 더 나아가, 여가활동을 참여함으로써 사회성이 발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능력 향상, 공동체 의식 함양, 높은 수준의 생활만족도, 스트레스 감소, 자아실현 등 현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권순용·권민혁·황선환·김한범, 2015; 차운성·윤영선·안동수, 2018).

여가활동은 사회문화적 측면과 역사적 측면 등이 포함되는 관계로 이에 대한 정의가 학자마다 시대·문화·환경별로 다르게 나타나 다양한 개념정의와 해석이 제시되어 왔다(박은정·오인하, 2018). 이 때문에 여가활동의 유형 역시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Iwasaki와 Schneider(2003)는 여가활동을 야외레크레이션활동, 문화활동, 취미활동, 위락여행활동, 육체적활동, 휴양활동으로 구분하였으며(양진연, 2017, 재인용). Nimrod(2007)는 고급문화 즐기기, 신문읽기, 대중문화 즐기기, 컴퓨터, 이웃만나기, 자유로운 옥외활동, 정신건강을 위한 여가활동, 테이블게임, 오락장가기, 부모나 형제, 자매만나기 등 11가지 유형으로 여가활동을 구분하였다(박진경·김민주, 2011, 재인용). Bruyn과 Cillessen(2008)은 여가활동을 사교적 활동, 혼자 즐기는 문화적 활동, 스포츠와 승용차 관련 활동, 컴퓨터 관련 활동으로 구분하였다(박진경·김민주, 2011, 재인용).

하지연(2005)은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따라 여가활동을 인지적 참여, 정의적 참여, 행동적 참여로 구분하였다. 인지적 참여는 사회기관, 학교, 매스컴,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하여 여가활동에 대한 일정한 정보를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여가참여를 뜻한다. 정의적 참여는 실제로 여가활동에 참여하지는 않

지만 간접적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성향, 가치, 태도를 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여가참여를 뜻하며, 행동적 참여는 개인이 직접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여가참여를 뜻한다.

최숙희(2009)는 여가활동을 활동적 여가와 소극적 여가로 구분하였다. 활동적 여가는 영화감상, 컴퓨터, 문화행사 참여, 기술습득, 독서, 음악듣기, 운동, 쇼핑 등이며, 소극적 여가는 친구만나기, 수다, 낮잠자기, TV/비디오보기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여가활동유형 분류는 오늘날 존재하는 수많은 여가활동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박진경과 김민주(2011)는 여가활동의 유형분류를 시기별로 정리하였는데 1950년대에는 여가활동의 소재나 소재를 다루는 방식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1960년대에는 여가활동의 유형을 특정 기준에 따라서 위계적으로 분류하거나 복수의 유형분류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1970년대 이후에는 행위자 관점에서 여가활동의 의사, 동기, 태도 등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여 분류하였고, 1980년대에는 여가행위자의 기준보다는 여가활동의 속성으로 분류하였다. 1990년대 이후로는 개념적인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주로 요인분석이나 군집분석 등과 같이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여가활동유형을 분류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2019)에 따르면 오늘날 여가활동 유형을 문화예술참여활동, 문화예술관람활동, 스포츠참여활동, 스포츠관람활동, 취미오락활동, 관광활동, 휴식, 사회 및 기타활동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여가활동 유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여가활동이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여 여가활동의 유형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자마다 연구목적과 대상에 따라 여가활동 유형을 다르게 구분을 짓고 있다.

여가는 크게 시간으로서의 여가, 활동으로서의 여가, 가치로서의 여가 세 가지로 개념화 할 수 있다(노용구, 2001). 첫째, 시간적 의미로의 관점은 생존과 생계를 위한 시간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간들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가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본다. 여가는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는 휴식으로서 취할 수 있는 시간 혹은 개인이 원하는 욕구들을 추구 가능한 시간을 제공하기도 한다(김동진·최찬주, 2020).

둘째, 활동적 의미로서의 관점은 여가는 만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여가를 현명하게 향유할 수 있는 조건

과 능력,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본다. 특히 여가활동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여러 가지 모임 장소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디서나 즐길 수가 있어야 하고, 여가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천성 중 하나라고 본다(김동진·최찬주, 2020).

셋째, 가치적 의미로서의 관점은 여가는 여가가 교육을 포함하고 인간의 전반적인 활동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고 본다. 이처럼 여가는 오늘날 현대적인 주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가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삶의 가치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인 관심사가 이어지고 있다(김동진·최찬주, 2020).

학자별로 여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Leiper(2004)는 여가란 인간의 경험의 한 범주으로써 의무감으로부터 자유를 가지고 추구하는 오락적 행동, 창의적 행동이며 개인의 즐거움으로 정의하였고, Metin 외(2013)는 여가를 직업생활 또는 근무시간을 벗어난 개인의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최순남(2002)은 여가란 노동으로부터 신체적 해방이며 개인에게 부과된 의무감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휴식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김송희(2006)는 여가란 일과 가사로부터 벗어난 자유시간이며 회복, 기분전환, 취미, 레크리에이션 등 문화적 예술적인 추구를 위한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신종화(2007)는 여가를 사람들의 자기실현을 위한 활동의 원리로 정의하였으며, 최웅렬과 김종길(2011)은 여가란 노동과 대비되는 것으로 노동이나 일을 잘 진행시키기 위해 에너지 재충전이 목적인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2.3.2 사회복지사의 여가활동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이 떠오르면서 웰빙이라는 개념이 삶 전반에 확산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일과 삶의 조화 및 시간분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시간적, 경제적, 의식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안병욱, 2017). 이에 따라, 여가활동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안병욱, 2017; 장성운·김건희·권순재, 2017)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지사의 여가활동과 연관된 선행연구(문수진, 2014; 박영준, 2007; 한상미, 2006)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중 시설종사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 특정 사회복지분야에 치우쳐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여가활동이 중심인 연구는 매우 드문 것을 알 수 있다.

문수진(2014)의 사회복지사의 행복과 불행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언제 가장 행복한지 묻는 문항에 9개의 응답지 중 여가활동의 응답률이 3번째로 높게 나타나 사회복지사의 행복에 여가활동이 중요한 요소 중 한 부분으로 제시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박영준(2007)의 노인시설종사자의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사회복지사의 심리적 안정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높은 여가만족을 보인 사회복지사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또한 높게 나타났다. 더 나아가, 시설종사자들의 여가활동은 내재적으로 보상을 받는 보상심리와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특별한 경험을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 등 교육적 형태를 같이 띠고 있어 시설종사자들이 여가활동에 즐겁고 몰두하게 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또한, 한상미(2006)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며, 여가활동수준이 충분하고 여가만족도가 높은 사회복지사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가활동이 사회복지사의 정서적, 심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고, 사회심리학적 요인으로 행복감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배지민·박용권, 2019; 안병욱, 2017). 또한, 휴식, 다양한 취미생활, 건강한 여가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을 개선해주며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업무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용구·윤영선·안동수, 2016; 배지민·박용권, 2019; 장성운·김건희·권순재, 2017). 이렇게 여가활동이 사회복지사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고 다양하게 진행되어 사회복지사를 위한 정책적 변화가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4 직무스트레스, 삶의 질, 여가활동의 관계

휴먼서비스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는 일반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수찬 외 2007; Wieclaw, Agerbo, Mortensen, & Bonde, 2006). 덴마크 국가 데이터를 분석한 Wieclaw 외(2006)의 연구에 따르면, 휴먼서비스 전문직은 다른 직종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질환 위험을 나타내었으며,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상대 위험을 보였다(남석인·이희정, 2017).

또한 사회복지사는 과도한 헌신을 보이거나, 불안정한 고용상태나 급여 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어(Wieclaw, Agerbo, Mortensen, & Bonde, 2006), 직무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하지만 직무스트레스는 다양한 부정적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직무스트레스 완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남석인·이희정, 2017).

선행연구에 따르면, 김기현(2019)의 연구에서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박길태 외(2017)의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병주와 윤경미(2014)의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직무스트레스는 소진, 이직 등 업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개인의 삶의 질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 박혜주 외(2014)의 연구에 따르면,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정신적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특히, 관계갈등, 직무의 불안정성, 조직문화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여가활동이 직무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직무만족을 높임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선행연구(안병훈, 2008)를 통해 밝혀진바 있다. 또한, 최응렬과 김종길(2011)의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휴식적·정신적·오락적·지적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는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이는 삶의 질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로 이항아와 윤명숙(2016)의 연구에서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감정노동과 우울,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옥남과 문승연(2014) 또

한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행복의 관계에 관해 살펴 본 결과, 직무스트레스가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사의 정신건강과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주(2016)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직무스트레스 문항은 직무요구, 의사결정권한, 직무자율성, 사회지원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직위, 근무형태, 고용형태, 급여, 업무량, 의사소통 문제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점모(2019)는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역할과중이 가장 큰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별 사회복지사들이 겪고 있는 직무스트레스 유형을 파악하고 각각의 직무스트레스가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여가활동이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독립변수는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이며, 종속변수는 삶의 질, 조절변수는 여가활동이다. 또한, 선행연구(박혜주 외, 2014; 손영주·송영아·최은영, 2008; 윤유진·홍선우, 2018; 이성철, 2019; 이옥인·박은영·홍재영, 2011; 조경숙·김윤미, 2019) 고찰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인구사회학적요인, 사회경제학적요인, 건강요인으로 구분하여 연령, 성별, 학력, 종교, 월 평균 소득, 결혼 상태, 주관적 건강 상태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3.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분야별 사회복지사들이 겪고 있는 직무스트레스 유형을 파악하여 각각의 직무스트레스가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 유형과 삶의 질의 관계: 여가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39

미치는지 살펴보고, 여가활동이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1]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여가활동 참여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사회복지분야별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4]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는 여가활동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종사영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관을 이용시설, 생활시설, 기타 사회복지기관으로 구분하여 표본을 할당하였다. 이에 따라 이용시설 응답자로 이용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164명, 생활시설 응답자로 생활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85명, 기타 사회복지기관 응답자로 공공기관이나 협회·협의회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52명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조사지역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으로 전국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20년 7월 20일부터 2020년 8월 16일까지 총 28일 동안 네이버 오피스(Naver Office) 시스템을 사용하여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먼저 연구자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전국의 사회복지기관 홈페이지에 노출되어있는 메일주소로 설문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설문 응답을 완료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지인들의 추천을 받아 추가적인 설문요청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구조화된 질문지로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시간은 대략 5~10분 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 14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01부의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

4.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4.1.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응답한 사회복지사 301명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108명(35.9%), ‘여성’이 193명(64.1%)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가 97명(32.1%), ‘30대’가 101명(33.6%), ‘40대’가 65명(21.6%), ‘50대’가 36명(12.0%), ‘60대’가 2명(0.7%)로 ‘30대’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학력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183명(60.8%)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재학 이상’이 79명(26.2%), ‘전문대학 졸업’이 39명(13.0%)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 116명(38.5%), ‘천주교’ 39명(13.0%), ‘불교’ 22명(7.3%), ‘무교’ 124명(41.2%)로 ‘무교’의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월 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50명(16.6%),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167명(55.5%),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65명(21.6%),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16명(5.3%), ‘500만원 이상’이 3명(1.0%)로 나타났으며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결혼 상태는 ‘기혼’이 137명(45.5%), ‘미혼’이 153명(50.8%), ‘사별’이 2명(0.7%), ‘이혼’이 5명(1.7%), ‘기타’가 4명(1.3%)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나쁨’이 6명(2.0%), ‘나쁨’이 49명(16.3%), ‘보통’이 143명(47.5%), ‘ 좋음’이 92명(30.6%), ‘매우 좋음’이 11명(3.6%)으로 ‘보통’의 건강상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4.1.2 직무 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 응답한 사회복지사 301명의 직무 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 165명(54.8%)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었고 136명(45.2%)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은 '5년 미만'이 201명(66.8%)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10년 미만'이 59명(19.6%), '10년 이상~15년 미만'이 27명(9.0%), '15년 이상~20년 미만'이 11명(3.7%), '20년 이상'이 3명(1.0%)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기관 총 근무경력은 '5년 미만'이 132명(43.9%), '5년 이상~10년 미만'이 73명(24.3%), '10년 이상~15년 미만'이 55명(18.3%), '15년 이상~20년 미만'이 29명(9.6%), 20년 이상이 12명(4.0%)로 나타났다. 현재 고용상태는 '정규직'이 246명(81.7%), '비정규직'이 51명(16.9%), '기타'가 4명(1.3%)로 나타났다.

근무기관의 형태는 '공공행정기관' 8명(2.7%), 사회복지단체 35명(11.6%), 이용시설 164명(54.5%), '생활시설' 85명(28.2%), 기타 9명(3.0%)으로 이용시설 종사자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45명(15.0%), 사회복지법인 157명(52.2%), 종교법인 24명(8.0%), 지방자치단체 18명(6.0%), 학교법인 26명(8.6%), 기타 31명(10.2%)로 나타났다. 응답 가능했던 근무기관의 주요사업 빈도는 아동복지가 66개(21.9%)로 청소년복지가 29개(9.6%), 여성복지가 18개(6.0%), 가족복지가 24개(8.0%), 장애인복지가 111개(36.9%), 정신건강사회복지가 28개(9.3%), 노인복지가 66개(21.9%), 지역사회복지가 55개(18.3%), 기타가 7개(2.3%)로 나타났다.

4.1.3 직무스트레스 수준

본 연구에서 응답한 사회복지사 301명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4점 만점에 최소 1.00점, 최대 4.00점이며 평균은 2.34 ± 0.46 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의 점수를 살펴본 결과, 모든 하위요인의 최솟값은 1.00점으로 나타났으며 최댓값은 4.00점으로 나타났다.

평균점수는 직무요구가 2.94 ± 0.65 , 조직체계가 2.64 ± 0.67 , 보상부적절이 2.36 ± 0.69 , 직무불안정이 2.21 ± 0.94 , 직장문화가 2.19 ± 0.73 , 직무자율성결여가 2.18 ± 0.55 , 관계갈등이 2.15 ± 0.6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한 황혜남(2018)의 연구에서 도출된 직무스트레스 평균(2.16 ± 0.29)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의 평균점수는 황혜남(2018)의 연구에서 도출된 직무자율성결여 2.47 ± 0.45 , 직무요구 2.31 ± 0.29 , 보상부적절 2.21 ± 0.46 , 조직체

계 2.14 ± 0.44 , 관계갈등이 2.08 ± 0.46 , 직무불안정 1.96 ± 0.63 , 직장문화 1.85 ± 0.63 과 차이를 보였다.

사회복지분야별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 평균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사회복지분야는 다중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다중응답 된 설문지는 ‘종합복지’로 코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인 직무스트레스 중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여성복지(2.55 ± 0.45)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정신건강사회복지(2.16 ± 0.40)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직무요구 중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청소년복지(3.25 ± 1.06)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정신건강사회복지(2.82 ± 0.76)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직무자율성결여 중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청소년복지(2.63 ± 0.18)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정신건강사회복지(2.01 ± 0.53)로 나타났다.

넷째,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관계갈등 중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장애인복지(2.26 ± 0.58)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청소년복지(1.50 ± 0.24)로 나타났다.

다섯째,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직무불안정 중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청소년복지(3.25 ± 0.35)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지역사회복지(2.04 ± 0.88)로 나타났다.

여섯째,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조직체계 중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여성복지(2.68 ± 0.61)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청소년복지(1.88 ± 0.18)로 나타났다.

일곱째,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보상부적절 중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기타(2.93 ± 0.72)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정신건강사회복지(2.14 ± 0.53)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직장문화 중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기타(2.40 ± 0.65)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정신건강사회복지(1.93 ± 0.63)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의 평균점수는 사회복지분야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복지분야별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의 평균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4.1.4 삶의 질 수준

본 연구에서 응답한 사회복지사 301명의 삶의 질 수준은 5점 만점에 최소 1.88점, 최대 4.95점이며 평균은 3.43 ± 0.57 로 나타났다. 삶의 질의 하위요인의 점수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영역의 최솟값은 1.00, 최댓값은 5.00으로 평균 3.36 ± 0.86 으로 나타났다. 심리적영역의 최솟값은 1.33, 최댓값은 5.00으로 평균 3.52 ± 0.71 로 나타났으며 신체적영역이 최솟값은 1.71, 최댓값은 5.00으로 평균 3.26 ± 0.52 로 가장 낮았다. 사회적영역의 최솟값은 1.00, 최댓값은 5.00으로 평균 3.44 ± 0.77 로 나타났고, 환경적영역은 최솟값 1.88, 최댓값 5.00으로 평균 3.54 ± 0.63 로 가장 높았다. 연구 참여자의 삶의 질 수준은 [표 4-5]와 같다.

이는 김리원(2019)의 연구에서 도출된 삶의 질 평균(3.48 ± 0.50)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삶의 질의 하위요인 평균점수는 김리원(2019)의 연구에서 도출된 신체적영역 3.62 ± 0.59 , 심리적영역 3.44 ± 0.61 , 사회적영역 3.41 ± 0.62 , 환경적영역 3.38 ± 0.60 , 전반적영역 3.52 ± 0.64 와 차이를 보였다.

4.1.5 여가활동만족도 수준 및 참여 현황

본 연구에서 응답한 사회복지사 301명의 여가활동만족도는 5점 만점에 최소 1.00점, 최대 5.00점이며 평균은 3.48 ± 0.76 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의 여가활동만족도 수준은 [표 4-6]과 같다. 이는 류현경(2020)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도출된 여가만족도 평균점수 3.51 ± 1.00 보다 낮게 나타났다.

여가활동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주에 참여하는 여가활동 빈도수가 '0회 이상~2회 미만'이 157명(5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2회 이상~4회 미만’이 117명(38.9%), ‘4회 이상~7회 미만’이 24명(8.0%), ‘7회 이상’이 3명(1.0%)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많은 사회복지사의 여가활동 참여 빈도수가 낮음을 알 수 있다. 1회 여가활동 참여 시간으로 ‘1시간미만’이 28명(9.3%), ‘1시간이상~2시간미만’이 103명(34.2%), ‘2시간이상~3시간미만’이 108명(35.9%), ‘3시간이상~4시간미만’이 31명(10.3%), ‘4시간이상’이 31명(10.3%)로 ‘2시간이상~3시간미만’이 제일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1시간이상~2시간미만’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현재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의 유형으로 ‘감상 및 관람활동’이 66명(21.9%), ‘스포츠 및 건강활동’이 92명(30.6%), ‘오락 및 사교활동’이 56명(18.5%), ‘취미 및 교양활동’이 63명(20.9%), ‘행락 및 관광활동’이 24명(8.0%)로 ‘스포츠 및 건강활동’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의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행락 및 관광활동’이 가장 적게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 유형으로 나타났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의 선호 이유로 ‘대인관계 형성 및 개선’이 23명(7.6%), ‘건강유지 및 증진’이 75명(24.9%), ‘스트레스 해소’가 176명(58.5%), ‘새로운 지식과 교양 습득’이 13명(4.3%), ‘기타’가 14명(4.7%)으로 스트레스 해소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여가활동 참여시 동반자로 ‘가족’을 선택한 응답자가 94명(31.2%)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를 선택한 응답자가 88명(29.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없음’이 78명(25.9%), ‘동료 및 동호인’이 35명(11.6%), ‘기타’가 6명(2.1%)으로 나타났다.

4.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4.2.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월 평균 소득은 $t=2.410$, $p=.049$ 로 유의수준 $p<0.05$ 를 기준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 상태는 $t=15.037$, $p=.000$ 으로 유의수준 $p<0.001$ 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LSD 사후

검정 결과, 월 평균 소득에서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집단과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집단에서 직무스트레스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집단의 평균점수가 2.04 ± 0.38 로 '200만원 미만' 집단의 평균점수 2.32 ± 0.52 ,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집단의 평균점수 2.38 ± 0.42 ,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집단의 평균점수 2.31 ± 0.49 , '500만원 이상' 집단의 평균점수 2.62 ± 0.05 보다 낮았다.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매우 나쁨', '보통' 집단과 ' 좋음', '매우 좋음' 집단에서, '나쁨' 집단과 '보통', ' 좋음', '매우 좋음'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매우 나쁨', '보통' 집단의 각 평균점수가 2.51 ± 0.59 , 2.93 ± 0.41 로 ' 좋음', '매우 좋음' 집단의 각 평균점수 2.14 ± 0.43 , 1.95 ± 0.42 보다 높았다. 또한, '나쁨' 집단의 평균점수가 2.65 ± 0.41 로 '보통', ' 좋음', '매우 좋음' 집단의 각 평균점수 2.39 ± 0.41 , 2.14 ± 0.43 , 1.95 ± 0.42 보다 높았다. 반면에, 성별, 연령, 학력, 종교, 결혼상태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5$).

4.2.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력은 $t=6.241$, $p=.002$ 로 유의수준 $p < 0.01$ 을 기준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월 평균 소득은 $t=4.477$, $p=.002$ 로 유의수준 $p < 0.01$ 을 기준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t=3.165$, $p=.014$ 로 $p < 0.05$ 를 기준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 상태는 $t=33.518$, $p=.000$ 으로 유의수준 $p < 0.001$ 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LSD 사후 검정 결과, 학력에서 '전문대학졸업' 집단과 '대학교졸업' 집단, '대학원재학 이상'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문대학졸업' 집단의 삶의 질 평균점수가 3.17 ± 0.66 으로 '대학교 졸업' 집단의 평균점수 3.43 ± 0.54 , '대학원 재학 이상' 집단의 평균점수 3.55 ± 0.53 보다 낮게 나왔다. 결혼상태에서 '기혼' 집단과 '미혼', '이혼'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혼' 집단의 삶의 질 평균

점수는 3.51 ± 0.48 로 ‘미혼’ 집단의 평균점수 3.38 ± 0.60 , ‘이혼’ 집단의 평균점수 2.75 ± 0.62 보다 높게 나왔다.

월 평균 소득에서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의 집단의 삶의 질 평균점수가 3.92 ± 0.48 로 ‘200만원 미만’의 평균점수 3.31 ± 0.58 ,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의 평균점수 3.44 ± 0.55 ,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의 평균점수 3.35 ± 0.55 보다 높게 나왔다.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매우 나쁨’, ‘나쁨’ 집단과 ‘보통’, ‘ 좋음’, ‘매우 좋음’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매우 나쁨’의 평균점수는 2.42 ± 0.35 , ‘나쁨’의 평균점수는 3.03 ± 0.58 로 ‘보통’의 평균점수 3.45 ± 0.46 , ‘ 좋음’의 평균점수 3.73 ± 0.44 , ‘매우 좋음’의 평균점수 4.23 ± 0.46 에 비해 낮게 나왔다. 반면에, 성별, 연령, 종교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5$).

4.3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인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여가활동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은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직무요구, 직무자율성결여,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중, 삶의 질과 보상부적절의 상관관계가 $r = -0.481$ ($p < .001$)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삶의 질과 직무불안정이 $r = -0.187$ ($p < .01$)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삶의 질은 여가활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 = 0.547$ ($p < .001$)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직무요구, 직무자율성결여,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모두 여가활동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중, 보상부적절과 여가활동이 $r = -0.386$ ($p < .001$)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직무불안정과 여가활동이 $r = -0.155$ ($p < .01$)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Pearson 상관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삶의 질은 직무스트레스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여가활동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직무스트레스는 여가활동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4-10]과 같다.

[표 4-10]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성별	1															
2.연령	-.051	1														
3.학력	-.109	.214***	1													
4.종교	.114*	-.216***	-.106	1												
5.월평균 소득	-.279**	.546***	.346***	-.214**	1											
6.결혼상태	-.002	.510***	.026	-.141*	.268***	1										
7.주관적 건강상태	-.102	-.028	.066	-.045	-.007	.022	1									
8.삶의 질	-.142*	-.002	.192**	-.042	.156**	.017	.554***	1								
9.적부요구	.082	.092	.087	.118*	.015	.061	-.328***	-.276***	1							
10.직무자율성결여	.219***	-.086	-.220***	.025	-.282**	-.122*	-.156**	-.417***	-.073	1						
11.관계갈등	.056	.154**	-.012	-.018	.058	.015	-.369***	-.453***	.277**	.279***	1					
12.자율성결여	-.027	.009	.116*	-.044	-.014	.005	-.175*	-.187**	.263***	.007	.214**	1				
13.조직세계	.144*	.109	.033	-.011	-.005	.032	-.320***	-.440***	.268**	.333	.578***	.360***	1			
14.보상부족결	.187**	-.027	-.030	.027	-.130*	-.134*	-.265***	-.481***	.192**	.481***	.520***	.269**	.665***	1		
15.직장문화	.042	-.094	.035	.127*	-.100	-.086	-.223***	-.217***	.291***	.176**	.418**	.464***	.519***	.355***	1	
16.여가활동	-.085	-.037	.001	.012	.043	-.040	.389***	.547**	-.184**	-.278	-.357***	-.155**	-.330***	-.386***	-.176**	1

4.4 가설검증

4.4.1 직무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외생변수를 통제한 후 직무스트레스가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월평균소득, 학력, 종교, 결혼상태, 건강상태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모형 모두 공차한계가 .10 이상, VIF 값이 10 이하로 나와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모형1]은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F=11.691(p<.001)$, $R^2=0.218$ 로 38.8%의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R^2 변화량=0.218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서 월 평균 소득($\beta=-.209$, $t=-3.740$, $p<.001$), 학력($\beta=-.120$, $t=-2.300$, $p<.01$), 주관적 건강상태($\beta=.364$, $t=6.939$,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형2]는 독립변수인 직무스트레스를 추가로 투입하여 외생변수 통제 후에도 직무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F=17.339(p<.001)$, $R^2=0.459$ 로 45.9%의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R^2 변화량=0.241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서 직무요구($\beta=-.135$, $t=-2.677$, $p<.01$), 직무자율성결여($\beta=-.256$, $t=-4.863$, $p<.001$), 관계갈등($\beta=-.175$, $t=-2.960$, $p<.01$), 보상부적절($\beta=-.141$, $t=-2.155$, $p<.05$) 4개의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하위요인 모두 삶의 질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직무요구가 많을수록, 직무자율성결여가 높을수록, 관계갈등이 높을수록, 보상이 부적절할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직장문화 3개의 하위요인들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직무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1]은 부분 채택되었으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4-11]과 같다.

[표 4-11]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1			모형2		
		B	β	t	B	β	t
통제변수	(상수)	3.381		21.334***	5.185		22.464***
	성별	.104	.089	1.679	-.011	-.009	-.201
	연령	.076	.064	1.004	-.015	-.013	-.230
	월 평균 소득	-.485	-.209	-3.740***	-.345	-.149	-3.118**
	학력	-.202	-.120	-2.300**	-.230	-.137	-3.031**
	종교	-.008	-.007	-.136	.018	.016	.341
	결혼상태	.018	.016	.266	-.013	-.012	-.223
	주관적 건강상태	.532	.364	6.939***	.291	.199	4.086***
	직무요구				-.116	-.135	-2.677**
	직무자율성결여				-.262	-.256	-4.863***
독립변수	관계갈등				-.151	-.175	-2.960**
	직무불안정				-.045	-.074	-1.426
	조직체제				-.084	-.101	-1.477
	보상부적절				-.116	-.141	-2.155*
	직장문화				.080	.104	1.798
	R^2	.218			.459		
adj. R^2		.200			.433		
R^2 변화량		-			.241		
F		11.691***			17.339***		

4.4.2 여가활동의 조절효과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여가활동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변수를 추가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호작용변수의 공차한계가 .10 이하, VIF 값이 10 이상으로 나와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평균중심화 과정을 통해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 한 후 조절회귀분석을 재실시 하였다.

첫째, [모형1]은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직무스트레스를 투입하여 직무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F=23.165(p<.001)$, $R^2=0.388$ 로 38.8%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 모형에서 직무스트레스($\beta = -.444$, $t=-9.006$, $p<.001$)는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모형2]는 조절변수인 여가활동을 추가로 투입하여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F=31.819(p<.001)$, $R^2=0.496$ 로 49.6%의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R^2 변화량=0.108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서 여가활동($\beta = .366$, $t=7.887$, $p<.001$)은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활동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 또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형3]은 상호작용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 여가활동의 조절효과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F=28.553(p<.001)$, $R^2=0.496$ 으로 49.6%의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R^2 변화량= 0.001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여가활동의 상호작용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596$). 이는 직무스트레스와 여가활동이 독립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준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만족도 높은 여가활동의 참여 촉진이 아닌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각각의 서로 다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는 여가활동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2]는 기각되었다. 여가활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조절회귀분석 결과는 [표 4-12]와 같다.

[표 4-12] 여가활동의 조절 효과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B	β	t	B	β	t	B	β	t
(상수)		4.762		22.900***	3.429		13.522***	3.473		11.508***
통제변수	성별	.046	.039	.839	.035	.030	.691*	.033	.028	.660
	연령	.038	.032	.560	.037	.031	.608	.037	.031	.611
	월 평균 소득	-.353	-.152	-3.051**	-.270	-.116	-2.550*	-.271	-.117	-2.556*
	학력	-.297	-.177	-3.775***	-.290	-.173	-4.057***	-.291	-.173	-4.059***
	종교	-.001	-.001	-.026	-.001	-.001	-.020	-.001	-.001	-.028
	결혼상태	.025	.022	.406	.077	.068	1.362	.077	.068	1.355
	주관적 건강상태	.325	.223	4.534***	.238	.163	3.598***	.237	.162	3.572***
독립변수	직무스트레스	-.549	-.444	-9.006***	-.398	-.321	-6.773***	-.395	-.319	-6.622***
조절변수	여가활동				.272	.366	7.887***	.262	.352	4.942***
상호작용 변수	직무스트레스 *여가활동							-.009	-.020	-.272
R^2		.388			0.496			.496		
adj. R^2		.371			.480			.479		
R^2 변화량		-			.108			.001		
F		23.165***			31.819***			28.553***		

여가활동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균점수(3.48점)를 기준으로 평균점수이상은 1로, 평균점수미만은 0으로 코딩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가활동에 따른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상호작용 효과가 없음을 의미한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여가활동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5.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직무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월 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 평균 소득이 400만원 미만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통 미만으로 느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수준이 ‘대체로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고, 경제수준이 ‘보통이다’와 ‘대체로 잘산다’(매우 잘 산다 포함)라고 응답한 경우에 직무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전병주, 2013)와 일치한다.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건강하다는 집단보다 건강하지 않다는 집단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온 연구결과(박승경·김종오·조영채, 2011)와 동일하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학력이 좋을수록,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미혼이거나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할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 평균 소득이 400만원 이상 일수록,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일수록, 결혼상태가 이혼보다는 미혼과 기혼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통 이상이라고 느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상태, 대학교 이상의 교육 수준, 이혼 및 별거가 아닌 유배우자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혜연, 2020)와 동일하다.

셋째,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7개의 하위요인 중 4개의 하위요인만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하위요인인 직무요구, 직무자율성결여, 관계갈등, 보상부적절 모두 삶의 질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직무요구가 많을수록, 직무자율성결여가 높을수록, 관계갈등이 높을수록, 보상이 부적절할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사의 낮은 급여 등 열악한 업무환경(김기현, 2019), 업무역할 갈등, 실천 방법에 대한 의견 불일치(McLean & Andrew, 1999), 조직의 종사자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전문직의 자율성에 대한 기대 사이의 갈등(Banks, 1998; Rachman, 1995) 등이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Collings & Murray, 1996; Gibson, McGrath, & Reid, 1989, 1989; Smith & Nursten, 1998; 김지현·황옥경, 2011, 재인용)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사회복지분야별 사회복지사가 겪는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본 결과, 사회복지분야별로 직무스트레스의 평균점수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기타복지관 순으로 사회복지분야별 직무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나온 선행연구의 결과(최수찬 외, 2008)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사회복지관의 유형에 따라 사회복지분야를 나눈 선행연구(최수찬 외, 2008)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관의 사업에 따라 사회복지분야를 나누었기 때문에 선행연구(최수찬 외, 2008)와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가활동은 삶의 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신체적 여가활동, 휴식적 여가활동, 오락적 여가활동, 지적 여가활동 등 모든 여가활동 유형이 삶의 질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결과(안병훈, 2008)와 일치한다. 하지만,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여가활동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여가활동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스트레스와 여가활동이 독립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는 하나, 직무스트레스가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가활동은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만족도 높은 여가활동의 참여 촉진보다는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각각의 서로 다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2 사회복지적 함의

5.2.1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직무요구, 직무자율성결여, 관계갈등, 보상부적절 완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낮은 급여 등 열악한 업무환경(김기현, 2019), 업무역할 갈등, 실천 방법에 대한 의견 불일치(McLean & Andrew, 1999), 조직의 종사자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전문직의 자율성에 대한 기대 사이의 갈등(Banks, 1998; Rachman, 2007) 등이 스트레스요인이 된다(Gibson, McGrath, & Reid, 1989; Collings & Murray, 1996; Smith & Nursten, 1998; 김지현·황옥경, 2011, 재인용). 본 연구결과 또한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직무요구, 직무자율성결여, 관계갈등, 보상부적절로부터 오는 직무스트레스가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수직적인 업무환경에서도 슈퍼바이저와의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하며, 클라이언트의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저임금 문제 해결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여가활동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여가활동은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 절반 이상이 주 2회 미만의 적은 횟수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생활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시간 외 근무시간이 10.1시간으로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특정영역 사회복지사 중 제일 많은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9). 이는 생활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여가활동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원인 중 하나로 사료된다. 따라서 생활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초과근무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다차원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건강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직무스트레스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건강향상을 위해 정기검진 제공 외에도 사회복지사가 의료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사의 월 평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월 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월 평균 소득은 직무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적은 인건비 및 운영비의 해결이 필요하다(윤기웅·제갈돈·김병규, 2017). 즉, 보상체계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박재홍·장용언, 2019), 빠듯한 예산배정으로 인해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미지급되는 것을 방지할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에게 재교육, 보수교육,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높은 지적 능력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준다(박재홍·장용언, 2019; 이경미, 2015). 이에 다양한 지적탐구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능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5.2.2 실천적 함의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여가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가활동이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복지사의 여가활동이 매우 필요함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여건과 여러 환경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활발한 여가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복지사의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결국 사회복지사의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 등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이영철·윤일현, 2007). 또한 안병훈(2017)의 연구에 따르면 여가지지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에게 여가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여가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을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사회복지사에 대한 주변의 관심과 지지가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직무요구, 직무자율성결여, 관계갈등, 보상부적절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장여옥, 2020)에 따르면 직무불안정, 직무자율성 결여, 관계갈등, 보상부적절이 사회적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스트레스의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도움을 준다는 선행연구(송유미·박영준, 2007; 임종호·최경일, 2010)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즉, 사회적 지지를 통해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이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에게 정서적 지원 등의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실천현장이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개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어려움과 비전을 나누는 장소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김리원(2019)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가 개체적 자아로 고립되어 문제나 어려움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조직 안에서 협력적이고 지지적인

분위기를 통해 외로움, 우울, 불안 등을 감소시키고 이는 신체적·정신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lausen과 Borg(2011)의 연구에 따르면 소명의식과 직장에서의 의미 있는 경험이 중요한 조직적 자원을 구성하고 이는 직무스트레스나 긴장을 다루는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조직 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실현해나가는 공동체 역할을 대신하는 장소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5.3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기반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설문지 응답률을 보면 301명 중 102명(33.9%)의 근무소재지가 서울에 집중되어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분야 또한 장애인복지가 301명중 92명(30.6%)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청소년복지는 301명 중 2명(0.7%)으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여 사회복지분야별로 응답률의 편차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전국의 사회복지분야별 모든 사회복지사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지역별, 사회복지분야별로 적절한 비율을 맞추어 큰 편차가 발생하지 않은 후속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무스트레스 척도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를 살펴보기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와 잦은 접촉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현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 오는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오는 직무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된 척도를 통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오는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영역의 신뢰도가 .500으로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적 영역은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바탕으

로 살펴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는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삶의 질 중 신체적 영역이 중요한 하위요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높은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보다 높은 신뢰도의 신체적 영역 척도 개발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간순옥·노병일. 2016. “사회복지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 『사회과학연구』 27(3), 195-214.
- 김동규. 2020.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이직의도가 상호 미치는 영향 분석: 택도시철도 기관사를 중심으로.” 『한국철도학회』 23(10), 976-988.
- 김동진·최찬주. 2020. “노인의 여가활동 만족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능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24, 87-115.
- 김리원. 2019. “사회복지사의 일터영성과 삶의 질의 관계: 정신건강과 돌봄 효능감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주. 2005. “감정노동이 관광산업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미간 비교연구.” 『論文集』 49(-[2005]), 355-374.
- 김영혜·김영미·구미지·김소희·이내영·장경오. 2007. “근로자들의 교대근무 경험.” 『지역사회간호학회』 32(4), 33-46.
- 김제선. 201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보수실태조사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1), 57-81.
- 김지현·황옥경. 2011.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외향성, 성실성과 직무 스트레스 간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9(-), 57-79.
- 김진완. 2016. “지역이벤트 체험이 사회적 연결감과 지역사회 애착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석인·이희정. 2017. “고용형태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의료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9(2), 77-102.
- 노주란·최은아. 2018. “간호사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의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16(1), 207-215.

류성봉. 201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삶의 질 연구: 노후준비 및 직무만족의 영향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민수·정소희. 2019. “사회복지사의 소진과 열정이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10), 563-575.

박순미·문순열. 2019.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성별, 가구유형별 집단 비교.” 『보건의료산업학회지』 13(4), 191-200.

박승경·김종오·조영채. 2011. “대학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관련성.”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2(9), 3887-3896.

박영준. 2007. “사회복지사들의 여가태도와 여가만족 및 조직유효성의 관계 연구: 노인복지시설종사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0(36), 295-320.

박진경·김민주. 2011. “여가활동유형별 여가태도와 여가행동 간의 관계: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관광레저연구』 23(4), 387-406.

박혜주·김운영·박기현·이시우·유종향. 2014. “연구직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피로, 삶의 질의 관계.”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3(3), 171-179.

배점모. 2019.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인적자원관리의 매개효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4), 177-197.

배지민·박용권. 2019.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여가활동과 직무만족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11), 937-950.

서여주. 2018. “중년기 근로자의 은퇴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가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영논총』 36(1), 73-105.

신혜중·이혁수. 2015.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3(53), 289-313.

양대현. 2019.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직무소진, 이직의도,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홍준·신인철·정태인. 2018. 『일·여가의 변화와 행복 복지』 파주: 집문당.

윤경아·심우찬·김기수. 201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직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공감만족과 공감피로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5(15): 77-101.

이성철. 2019. “시니어세대의 여가활동참여와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직무만족 및 삶의 질 관계에 관한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22(2), 161-189.

이소현·김민수·김희웅. 2019. “위라벨 이슈 비교분석: 한국과 미국.” 『정보시스템연구』 28(2), 153-179.

이종규·차길수. 2018. “카지노 교대근무 종사자의 피로도가 직무만족 및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학회』 22(4), 567-587.

이지희·이은희. 2017. “저소득층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1(2), 85-109.

장경은·배기효·신지연. 2013.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복지행정논총』 23(2), 1-23.

장성운·김진희·권순재. 2017. “중년층의 여가인식 및 여가유능감이 여가지속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6(2), 407-418.

장세종. 2011. “휴면서비스조직의 조직환경이 종사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훈·김우정·허태균. 2012. “여가참여 다양성과 행복의 관계: 참여여가활동의 수와 여가시간 집중도를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9(3), 21-38.

전혜진. 2016. “호텔직원들의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연구』 20(5), 243-258.

조인경·이진화. 2012. “보육교사의 여가생활 현황분석과 여가만족, 여가제약이 직무만족도, 직무스트레스 및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6(2), 109-128.

차운성·윤영선·안동수. 2018. “여가활동 참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42(3), 27-42.

최문경·정영주·문경원·신원식. 2020.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유형: Q 방법론 적용.”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2(2), 1-24.

최문종·이동하·안현숙. 2014. “직장인들의 웰니스, 주관적 행복감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2(11), 597-606.

최선미·김정숙. 2020. “공무원의 삶의 질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가직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 유형과 삶의 질의 관계: 여가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61

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51(1), 183-213.

최수정. 2000. “도구개발을 통한 한국 노인들의 삶의 질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영수·백국현·조성욱·최은영·박일환·정유석·유선미. 2004.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가 불안성향에 미치는 영향.” 『가정의학』 25(3), 224-232.

최응렬·김종길. 2011. “경찰공무원의 여가활동이 직무만족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6(2), 63-86.

최홍권. 2010. “노인의 정신건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고령자 집단과 초고령자 집단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혜남. 2018. “노인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J Health Info Stat』 43(4): 267-273.

Banks, S. (1998). Professional Ethics in Social Work- What Futur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8(2), 213-231.

Bauman, Z., & Bordon, C. (2014). State of crisis. Cambridge: Polity.

Beehr, T. A., & Newman, J. E. (1978). Job Stress, Employee Health,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 Facet Analysis, Model, And Literature Review. Personnel Psychology, 31(4), 665-699.

Benbow, S. M. (1998). Burnout: Current knowledge and relevance to old age psychiatry.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3(8), 520-526.

Bowling, A., Gabriel, J., Dykes, A., Fleissing, D., Banister, & Sutton, S. (2003). Let's ask them: A national survey of definition of quality of life and its enhancement among people aged 65 and over.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cation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Bradley, J., & Sutherland, V. (1995). Occupational stress in Social Services: A Comparison of Social Workers and Home help staff,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5, 313-331.

Caplan. R. D., & Jones, K. W. (1975). Effects of workload, role ambiguity, and Type A personality on depression and heart rat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0(6), 713-719.

Caughey, J. (1996). Psychological distress in Staff of a Social Services district office: A pilot study.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6(3), 389-398.

Clausen, T., & Borg, V. (2011). Job demands, job resources and meaning at work.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6(8), 665-681.

Clipp, E. C. (2002). Quality of life. In Maddox (Ed.), in encyclopedia of aging, New York: Springer.

Cooper, C. L., & Marshall, J. (1976). Occupational sources of stress: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lating to coronary heart disease and mental ill health.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49(1), 11-28.

Edwards, D., Hannigan, B., Fothergill, A., & Burnard, P. (2002). Stress management fo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a review of effective techniques, *Stress Health*, 18(5), 203-215.

Evans, D. R. (1994). Enhancing quality of life in the population at large, *Social Indicators Research*, 33(1/3), 47-88.

Fayers, P. M., & Machin, D. (2013). *Quality of Life: The Assessment,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Patient-reported Outcomes*, 2nd Edition. Wiley.

Hendrix, W. H., Ovall, N. K., & Troxer, R. C. (1985). Behavior and Psychological Consequence of Stress and its Antecedent Factor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0(1), 188-201.

Iwasaki, Y., & Schneider, I. E. (2003). Leisure, stress and coping: An evolving area of inquiry. *Leisure Science*, 25(2-3): 107-113.

Lehman, A. F. (1983). The effects of psychiatric symptoms on quality of life assessments among the chronic mentally III, *Evaluation and Program Planing*, 6(2), 143-151.

Leiper, N. (2004). *Tourism management*. Sydney, Australia: Pearson Education.

Martin, U., & Schinke, S. P. (1998).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and Burnout of Mental Health Workers. *Social*

Work In Health Care, 28(2), 51-62.

McLean, J., & Andrew, T. (1999). Commitment, Satisfaction, Stress and Control Among Social Services Managers and Social Workers in the United Kingdom.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23(3-4), 93-117.

Nimrod, G. (2007). Retirees leisure: Activities, benefits, and their contribution to life satisfaction. *Leisure sciences*, 26(1), 65-80.

Novaco, R. W. (1979). The cognitive regulation of anger and stress. In P. Kendall & S. Hollan (Eds.), *Cogn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Theory, research and procedures*. New York: Academic Press.

Parker, D. F., & DeCotiis, T. A. (1983). Organizational Determinants of Job Stres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32(2), 160-177.

Prosser, D., Johnson, S., Kuipers, E., Dunn, G., Szmukler, G., Reid, Y., Bebbington, P. & Thornicroft, G. (1999). Mental health,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in a longitudinal study of mental health staff.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4(6), 295-300.

Rachman, R. (1995). Community care: changing the role of hospital social work. *Health &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3(3), 163-172.

Ribeiro, I. J., Pereira, R., Freire, I. V., de Oliveira, B. G., Casotti, C. A., & Boery, E. N. (2018). Stress and quality of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Health Professions Education*, 4(2), 70-77.

Selye, H. (1956). *The stress of life*.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Sirgy, M. J., & Cornwell, T. (2001). Further validation of the Sirgy et al.'s measure of community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6(2), 125-143.

Smith, J. L. (1995). Community integration and quality of life following traumatic brain injur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erta.

Smith, M., & Nursten, J. (1998). Social Workers' Experience of Distress—Moving Towards Chang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8(3), 351-368.

Thompson, N., Stradling, S., Murphy, M., & O'Neill, P. (1996). Stress and Organizational Cultur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6(5), 647-665.

WHOQOL Group. (1995).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WHOQOL, position paper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41(1), 1403-1409.

김경은. “워라밸을 아십니까?” 경향신문. 2017.12.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12281103001

김세호. “‘워라밸’ ‘생산성’ … 주 52시간대책 마련 분주.” YTN. 2018.6.3.

http://www.ytn.co.kr/_ln/0102_201806032234364222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박견혜. “‘워라밸’ 바람, 야근·특근 No, 조직보다 개인이 우선” 시사저널e. 2018.2.3.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3625>

전진호. “‘인권 보장하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투신, 이번엔 대책 마련될까.” 웰페어뉴스. 2018.6.5.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5015>

조태성. “워라밸은 틀렸다 … 일과 삶은 하나.” 한국일보. 2018.2.3. <http://hankookilbo.com/v/64920793971d47f296699e796f9e94f2>

한국기업교육학회. HRD 용어사전. <http://www.hrdkorea.com>. 2010

한선미. ‘워라밸’이 가능한 사회인가?. 프레시안. 2017.6.1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0527>

[논문접수 20 . . . ; 심사완료 20 . . . ; 게재확정 20 . . .]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Stress and Quality of Life of Social Workers: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Leisure Activity

Jin Ah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ypes of job stress of social workers in each field and how each job stress affects the quality of life of social workers. This study also examined moderating effect of leisure activities in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quality of life of social workers.

This study allocated samples by dividing social welfare agencies into non-living facilities, living facilities, and other social welfare agencie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working areas, and final sample of the study included 301 social workers nationwid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nline survey using the Naver Office system.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ypes of job stress of social workers in each social welfare field.

Second, the types of job stres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of social workers were job demands, insufficient Job control, relationship conflict, and inappropriate compensation.

Third, the moderating effect of leisure activit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quality of life were not significant. As a way to reduce the negative impact of social worker's job stress on the quality of life, different ways are needed to reduce job stres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성역할갈등이 20대 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진영*

【목차】

- I. 서론
- II. 문헌고찰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성역할갈등과 20대 남성의 우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2020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3주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2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5.0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독립표본 T-검정, 일원 배치 분산분석(ANOVA), 상관관계분석,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우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로 연령, 종교, 경제활동, 거주지역, 지역단위, 동거가족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성역할갈등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대학원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 성역할갈등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 남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정신건강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현장에서 20대 남성이 경험하는 성역할갈등에 대해 인식하고 개입해야 한다. 셋째, 정책에 있어 20대 남성에 대한 물질적 지지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넷째, 20대 남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서울 YWCA는 최근 10·20세대에서 크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2018년 이후 출시된 웹드라마 상위 30편(YouTube·NAVER TV 중심)을 대상으로 성평등 및 성차별적인 사례를 분석하였다(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서울 YMCA, 2019).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성평등 관련 내용은 14건, 성차별 관련 내용은 42건으로 나타났다. 성차별 관련 내용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내용’이 15건(35.7%)으로 가장 많았는데, 여성은 ‘보호받는 존재’로 남성은 ‘문제해결자, 평소 감정표현을 하지 못하는 존재’로 등장하였다. 이는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이 사회 내에서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전통적인 유교 사상으로 인해 남성이라면 타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어떠한 가치보다 성공을 추구해야 하며, 물리적인 힘을 키우고 자립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마경희·조영주·문희영·이은아·이순미, 2018). 하지만 현대적 남성 역할에서의 남성성이란 경제적 성취, 조직화 된 힘, 정서적 통제와 함께 정서적 민감성 그리고 자기표현능력을 포함하기 때문에 현대의 남성들은 성역할 학습에서 불일치를 경험한다(허혜경, 2010). 특히 발달과정에 있어 20대 남성은 성역할에 대해 스스로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시기이기에 전통적 남성의 성역할과 현대의 성역할 사이의 불일치

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곽삼근·조혜선·윤혜경, 2005).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현대의 20대 남성들은 전통적인 남성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그와 동시에 페미니즘에 대해 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실제로 20대 남성들은 사회 전반에서 가부장제도 혜택을 받은 집단은 기성세대이며, 20대 남성에게는 정서적 민감성, 일·가정양립, 감정표현 등의 사회로부터 강도 높은 성 관련 기대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마경희 외, 2018). 성역할이 남성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논의되어왔다. O'Neil(2008)은 기존 남성성 규범 관련 연구를 통해 전통적 남성성 규범인 성공·권력·경쟁, 감정절제, 남성간의 애정행동 금지요인은 남성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이를 성역할갈등이라고 정의하였다.

성역할갈등을 경험한 남성들은 자신에 대한 특성을 제한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동등한 기준을 적용한다. 그 결과 경직되고 제한적이며, 내면화된 남성성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경험한다(정경미, 2014). 이에 선행연구에서는 성역할갈등이 심각할 경우 심리·정서적 측면에 있어 남성에게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성역할갈등은 낮은 자존감, 우울 및 불안, 전반적 심리적 상실감, 적개심 등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O'Neil, 2008), 특히 성역할갈등의 하위요인에 있어 '성공에 대한 두려움'과 '여성스러움'에 대한 공포를 가진 남성들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epard, 2002). 실제로 선행연구에 있어 우리나라의 20대 남성 중 성역할갈등이 높은 남성은 낮은 남성들과 비교해 삶의 만족도, 자존감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연·김인순·김지현·김진아, 2012).

한편 2018년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20대 남성의 경우 2016-18년 사이 3년간 44.7%의 우울증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우울증은 삶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드는 정신장애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심리적 독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흔한 장애이다(박선영·권석만, 2014). 우울이 심화하면 자살로 이어지게 되는데 2018년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남성의 자살률은 21.5%로 2017년 20.8%보다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의 동기로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43.1%, 경제생활 문제 20.3%, 남녀 문제 10.5%,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 7.6%로 다른

연령대보다 특히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남녀 문제,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인한 자살 비율이 높았다(중앙자살예방센터, 2019).

선행연구는 일관되게 성역할갈등과 우울 간의 유의한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김지현·최희철, 2007). 하문선과 김지현(2013)의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의 높은 성역할갈등이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리라와 이민아(2012)의 연구에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통적인 성향의 성역할 태도는 성 평등적 지향과 충돌, 긴장을 유발함으로써 20대 남성의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윤희와 정주리(2019)의 연구에서 성역할갈등은 남성들의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지나치게 경직된 방식으로 따를 때 심리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고 이는 우울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선행연구에서는 남성이 경험하는 우울의 특징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우울과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다. 남성의 우울은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성준모, 2012), 서성만과 이미숙(2016)의 연구에서는 우울은 가족, 친구, 이웃에 의한 사회적 지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대 남성의 경우 20대 남성 대다수가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로 인해 심한 우울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경·이윤주·이민정, 2018).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게 되면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증상을 유발하게 되고 심신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임효영·김경신, 2001). 특히 ‘친밀감’을 경험하는 시기인 청년기에 사회적 지지는 삶의 중요한 원천일 뿐 아니라 심리적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박선영·권석만, 2014).

이에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성역할태도와의 관계에서 우울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박경순과 박영란(2018)의 연구에서는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전통적 경향의 성역할태도가 우울감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완충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의 대상은 여성 노인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20대 남성의 성역할갈등과 우울 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전무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성역할갈등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대 청년의 심리·정서 문제에 대한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부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김지경 외, 2018), 20대 남성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관심이 부재하여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김경숙, 2020). 특히 성역할갈등과 우울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역할갈등은 주로 여성의 삶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왔다. 또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역할갈등과 우울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은 특정 지역, 연령, 직업 등의 남성이었기에 남성의 다양한 하위요인을 고려하지 않아, 이를 포함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제연화·심은정,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성역할갈등을 경험하는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성역할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성역할갈등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성역할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20대 남성의 심리적인 측면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동안 사회복지영역에 있어 관심이 소홀했던 20대 남성의 성역할갈등과 우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적,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대 남성의 성역할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성역할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대 남성이 현대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성역할갈등을 이해하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통해 20대 남성의 성역할갈등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적,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연구목적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우울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 연구목적 2. 20대 남성의 성역할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 연구목적 3.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연구목적 4. 20대 남성의 성역할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다.

II. 문헌고찰

2.1 우울

우울은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복잡하며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박재완·최복규·이상원·이현주, 2020), 삶의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명숙·이묘숙, 2011). 미국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으로 알려진 DSM-5는 우울장애에 대해 슬픔, 공허함, 짜증스러운 기분과 함께 수반되는 신체적, 인지적 증상으로 인해 개인의 건강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부적응적 증상이라 정의하였다(권석만, 2013). 우울장애를 경험할 경우 일상적인 생활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기능적인 측면이 저하되며, 무언가를 집중하거나 흥미를 갖고 외부에 신경을 쓰면서 활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김지경 외, 2018).

우울이 심각할 경우 개인은 우울장애뿐만 아니라 물질 장애 등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다(강초롱, 2017). 우울의 원인으로는 신경전달물질의 이상과 유전적 요소 뇌하수체 이상 등의 생물학적 요인(권석만, 2013)과 사회환경에 있어 긍정적인 강화의 결핍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심리·사회학적 요인(우성범, 2010)과 그 외에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병한다고 보았다. 기존 이론에서도 우울과 관련하여 다양한 원인과 발생과정을 제기하였다.

먼저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인간의 심리적 문제가 개인의 무의식적 동기와 함께 갈등의 문제로 설명하였으며(권석만, 2014), 행동주의적 이론에서는 사회환경으로 긍정적 강화가 약화 될 경우, 우울장애가 발생한다고 보았다(권석만, 2014). 다음으로 인지적 이론에서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으로 인해 우울장애가 발생한다고 보았다(권석만, 2014). 마지막으로 생물학적 이론에서는 신경전달물질과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우울장애가 발생한다고 보았다(권석만,

2014).

DSM-5에 의하면 우울증의 진단기준은 최소 2주 동안 우울증에 제시되는 아홉 가지 증상 중 다섯 개 이상의 증상이 거의 매일 연속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우울장애는 우울 증상의 심각도와 지속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정신병적 우울과 신경적 우울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내인성 우울과 반응성 우울, 지체성 우울과 초조성 우울로 구분할 수 있다(안창일 외, 2019).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 가장 많은 질환이 우울증이며(한국보건의료원, 2012), 2016년 기준 한국 통계청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평생 우울 유병률은 5%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우울의 기본적 증상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연령과 성별,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연령에 있어 우울의 경우 김진영(2009)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은 청년기에 높긴 하나, 30대 후반에는 최저점에 도달하고 중년기부터는 다시 증가하여 노년 집단으로 갈수록 크게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노년 집단에서는 같은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우울이 다르게 나타났다(박병선, 2012). 이는 우울의 원인에 있어 청년기와 구별되는 교육, 고용상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김진영, 2009).

또한, 성별에 있어 우울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우울은 국가와 문화와 관계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나 높은 유병률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원인에 있어서는 호르몬 차이, 출산의 영향, 남녀가 다르게 경험하는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 학습된 절망자의 행동 모델 등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수현·서규동·유명이·이봉재·이종하, 2018).

2.2 20대 남성의 우울

최근 20대 성인의 우울은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은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여 생긴 결과라고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들은 우울을 중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주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김경숙, 2020).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20대 우울증 환자 비율은 2014년에 비해 9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살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자살 생각을 경험한 사람은 22.9%로 조사되었다(김경숙, 2020). 이를 통해 우울은 더 20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20대 청년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일자리’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심리·정서적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김지경 외, 2018).

우울은 국가, 문화나 인종에 상관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서영·장성만, 2019). 그러나 최근 들어 우울의 성차를 해석하는 다른 대안적 설명들이 나타나고 있다(조영임·주은선, 2020). 국내에서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우울 유병률을 연구한 결과, 남학생(40.2%)이 여학생(31.3%)보다 우울의 유병률이 높았으며(심은정, 2016), 이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3)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20대 남성의 우울장애 증가 경향과 부합한 결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사회 내에서 우울증은 여성 전용 질환이라는 인식이 있어 기존 연구에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 관련 연구는 희박하였다(최정현, 2012). 남성의 우울에 대해 연구자들은 전통적인 우울증 진단기준은 여성의 특징과 일치하는 대처과정을 대표하고 있기에 남성의 우울은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또 다른 방식으로 경험된다고 주장한다(Kilmartin, 2005). 이러한 주장에 뒷받침하는 우울 증상에는 대표적으로 ‘가면우울증’이 있다.

가면우울증이란 ‘우울한 기분이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울’을 말한다(김춘경, 2016). 이에 남성의 우울은 우울감과 무력감 등 정서적인 측면보다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도박, 식욕부진 등의 신체적 측면으로 나타난다(김춘경, 2016). 남성들은 우울한 감정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특징이 있으며(최정현, 2012),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성이 자신의 우울에 있어 관대하게 자가진단을 하여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송인환 외, 2019).

임상가들에 따르면 남성들의 우울증 발현 방식은 여성과 다른 양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물질사용 장애가 더욱 흔하게 동반되

고(윤서영·장성만, 2019), 사회적 철수, 실패감과 신체적 불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훈 외, 2013). 또한, 자살에 있어 우울이 심각한 남성의 경우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행동수준이 높기에 자살 행동에 더 취약하다고 예측하였다(최정현, 2012).

우울증의 최초 발병연령은 20~25세로 알려져 있다. 발병연령이 어릴수록 이후의 결과로 재발과 만성화 가능성이 크며,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조영임·주은선, 2020). 첫째, 우울증이 일찍 발병할 경우 심각도가 높으며 유전적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둘째, 우울증의 결과 때문에 20대 이후 필요한 사회적응기술을 습득하는데 어려움과 함께 이의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안창일 외, 2019).

청년층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에 관련한 요인을 연구한 결과 청년층과 대학생의 경우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숙, 2020). 먼저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울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대인관계 문제, 인격적으로 배려받지 못한 성장 과정이 있었다(김경숙, 2020). 다음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래의 경제 걱정, 취업 관련 스트레스 등이 있었다(김경숙, 2020).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살과 관련하여 20대 남성의 우울을 살펴보면 우울증 유병에 따라 청년기 성인의 자살 생각률에 대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년기 성인의 자살 생각률은 33.0%로 우울증을 앓고 있지 않은 청년기 성인(3.2%)보다 29.8%가 높았다(질병관리본부, 2018). 이는 20대 남성의 자살률은 전년도 대비 7.2%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자살률의 동기로는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2018). 다음으로 정신문제 상담경험 현황을 보면 청년기 남성의 경우 여성의 상담률(3.9%)에 비교해 남성(1.8%)은 스스로 우울을 인식하면서도 도움을 청하거나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2018).

2.3 남성과 성역할갈등

2.3.1 성역할의 개념

성역할은 한 개인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내면화된 남성과 여성다움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태도를 의미한다(곽삼근 외, 2005). 인간의 심리나 행동은 생물학적 성과 관련은 있지만, 생물학적 성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최희철·정민선·장지영·김지현, 2011). 1960년대 이전에는 성역할 특성이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여성운동이 일어난 후 성역할은 한 사회 안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으로 보았다(양순금, 2017).

전통적으로 남성이라면 일반적으로 자기주장을 강하게 해야 하며,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지만(Eisler, Skidmore, & Word, 1998), 여성의 경우 복종과 의존성, 감정적인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되어 왔다(김지경 외, 1989). 이는 기존의 알려진 성역할에 대해 여성의 경우 부정적 요소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남성의 경우 긍정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 것을 알 수 있다(장선희, 2011). 남성과 여성은 성장하면서 본인이 가진 성(sex)에 맞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문화 규범적으로 습득하게 된다(Lavent, 1992).

어린 시절부터 남아들은 영웅 놀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울면 안 되는 남성으로, 여성은 감정적이고 주변을 돌보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사회화된다(Lavent, 1992). 이러한 사회화는 성역할로 이어지는데, 이는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에서 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 양식을 말한다(O'Neil, 1981). 성역할은 가족, 학교, 직업, 대중매체 등 사회환경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게 하고 생애 초기부터 지속해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하문선·김지현, 2016).

이러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전히 한국사회 내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9). 한국양성평등교육원이 서울 YWCA가 2018년 이후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브와 웹드라마, 홈쇼핑, 커뮤니티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사회적 직업을 가진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가부장제를 수행하는 성역할에 벗어난 남성은 '남성성'이 결여된 존재, 사회적 직업과 권력을 가지지 못한 남성에게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등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9). 근대사회와 달리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공통적인 성역할이 필요한 사회에서 성별에 따

른 이분법적인 성역할 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자아 정체감의 혼란 및 역할 정체감에 있어서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박경순·박영란, 2018).

성역할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크게 동일시이론, 사회학습이론, 인지발달이론이 있다(허혜경, 2010). 먼저 동일시이론에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아동은 동성의 부모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본인과 동일시한다고 보았다(허혜경, 2010). 남성의 경우 남성다운 아버지의 태도와 행동과 특성을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성역할을 습득한다고 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아버지와 자녀 간 성역할 행동이 유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사회학습이론에서 성역할은 내적 동기보다 주변 사회적 환경이나 문화적 제도를 통해 개인의 성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환경의 보상과 처벌이 성역할 형성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허혜경, 2010). 인지발달이론에서 성역할은 성정체감에 있어서 성역할을 형성하는 아동은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을 통해 인지능력을 스스로 발달시키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사회적 성을 확립해 나간다고 주장하였다(허혜경, 2010).

결론적으로 성역할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것은 성역할의 형성과 확립하는 과정은 개인이 태어난 사회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성역할이 사회 문화에서 요구한 바와 자신의 성향과 속성이 일치할 경우,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역기능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수연·김인순·김지현, 2011). 특히 한국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있어 전통적으로 성역할에 대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는 경향이 강하며 전통적인 성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황하만·김명자, 2017).

2.3.2 남성의 성역할갈등

성역할갈등이란 미국에서 남성 심리연구학자인 O'Neil(1981)이 처음 정의하였다. 성역할갈등은 전통적 성역할을 내면화하도록 강요받음으로써 성역할이 자신과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심리적 상태이다(황하만·김명자, 2017). 이와 관련하여 Pleck은 '성역할 긴장이론'을 통해 개인이 소속된 사회에

서 구성된 성역할에 맞게 살지 못할 경우, 심리적 긴장이 유발된다고 주장하였다(Pleck, 1995). 특히 성역할갈등은 남성이 생애주기에서 발달과업의 갈등에 대한 직면, 성역할 변화에 대한 경험, 남성성 이데올로기에서 말하는 성역할 규준에 대한 이탈, 남성성 이데올로기의 규준 위반 또는 이를 따르는 것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평가절하, 속박, 모독감을 느낄 때 발생하게 된다(O'Neil, 2008).

윤진(1985)이 구분한 한국인의 생애주기에 따르면 20대 남성에게 해당하는 청년후기(19-25세)와 성인전기(25-35세)의 남성들은 성역할 가치관 재확립(곽삼근 외, 2005)의 과정에서 남성 성역할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대학 혹은 직장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증대될 수 있다(제연화·심은정, 2015). 성역할갈등을 경험할 때, 개인은 자신 또는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이는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Good & Wood, 1995; O'Neil, 1981; O'Neil et al., 1986).

특히 남성이 경험하는 성역할갈등은 우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남성 성역할에 지나치게 순응한 결과, 남성들은 인간으로서 누구에게나 느끼는 감정(슬픈 감정, 낙담함)에 대해 표현을 스스로 제약하며 구속하게 되며 이러한 감정들은 우울로 이어지게 된다(Shepard, 2002). 국내에서 이루어진 성역할갈등과 우울에 대한 연구에서 우울은 성역할갈등과 자살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제연화, 2014), 성역할갈등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남성일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변지영·김선경, 2019).

성역할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성역할 규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경험하는 성역할갈등이 다를 수 있다(이민아, 2020). 여성들의 경우, 성역할갈등에 대해 성적 불평등과 편견의 대상이라는 객관적 현실에 대해 자신에 대한 한계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성역할갈등을 경험하는 반면(장선희, 2011), 남성의 경우 사회에서 기대하는 '남성다움'에 대한 집착과 부적절함으로 인해 성역할갈등을 경험한다(최명식, 1995). 또한, 남성들은 엄격하고 제한된 성역할을 요구받기 때문에 '구속'의 형태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박수애·조은경, 2002).

특히 남성은 성역할 규범을 준수해야만 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다고 사고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사고는 남성에게 역기능적 측면으로 작용한다(박수

애·조은경, 2002). 남성은 사회에서 남성성이라고 내려진 독립성, 적극성, 공격성 등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지니고 있던 여성성을 부정 및 억압하여 사회가 부여한 남성성을 더욱 부각하고자 한다(제연화, 2014; O'Neil, 1981a, 1981b; Pleck, 1981, 1995). 이러한 과정에서 남성들은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드러내거나 회피하고자 한다(Jakupcak, Tull & Roemer, 2005; Kuebl & Fkvush, 1992).

처음 성역할갈등과 관련한 개념이 등장했을 때는 여성의 성역할갈등의 역기능적 측면이 부각 되었다. 하지만 이후 남성들 또한 성역할갈등을 경험할 때 여성스럽게 보이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책임감 등의 역기능적 측면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진·최정훈·김영미, 1989; O'Neil, 1981). O'Neil(1986)은 이러한 성역할갈등을 조사하기 위해 남성 성역할갈등 검사를 개발하였다. 한국에서는 O'Neil의 성역할갈등 척도를 바탕으로 이수연 외(2012)가 한국남성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맞게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를 개발하였다.

한국형 남성 성역할갈등 검사 요인은 O'Neil(1986)의 성공·권력·경쟁, 일과 가정양립, 감정표현 억제, 남성과의 애정 행동 억제로 이루어진 성역할갈등 척도와 함께 남성우월과 가장의무감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추가하여 총 여섯 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이수연 외, 2012). 검사개발 결과, 한국남성이 경험하는 성역할갈등의 경우 갈등 영역이 다양할 뿐 아니라 갈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연 외, 2012). 특히 생애주기에 따라 갈등상태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성역할갈등은 남성에게 심리적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정미경, 2020). 남성이 경험하는 성역할갈등은 실제 남성의 행동과 부정적인 심리에 대해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Good & Wood, 1995). 그러나, 여전히 국내의 선행연구 대부분 남성의 성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남성의 성역할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바라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은 대학생으로 한정적이기에 그 결과가 다른 연령대의 남성에게 일반화가 가능한지 추후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2.4 남성과 사회적 지지

2.4.1 사회적 지지의 개념

사회적 지지라는 용어는 심리학에서 가족, 친구, 교사 등 개인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타인에게 얻을 수 있는 자원이라는 뜻으로 등장하였다(House, 1988). 이 외에 사회적 지지의 정의에 대해 대표적으로 Cohen과 Honerman(1983)은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정신건강과 사회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자원이라고 정의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박지원(1985)은 개인의 주변 대인관계로부터 받는 정서, 정보, 물질, 평가적 도움을 사회적 지지라고 정의하였다.

박지원이 정의한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서적 지지는 존경, 신뢰, 애정, 친밀감 등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물질적 지지는 금전과 서비스, 물건 등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부분, 정보적 지지란 어떠한 문제에 있어 해결할 때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평가적 지지란 개인의 행위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는 이처럼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자원을 말한다(김예지, 2018). 일상생활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요건이며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삶에 있어 순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영신·김의철, 1999).

2.4.2 사회적 지지의 효과

사회적 지지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대상과 연령의 삶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배점모, 2015). 특히 사회적 지지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이장범, 2012; Cohen & Wills, 1985). 높은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적응을

증가시키고 우울증으로의 전이를 예방하고, 그 정도를 낮추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혜 외, 2000; 이항아·윤명숙, 2016).

사회적 지지의 효과의 대표적 모델에는 주 효과 모델과 완충효과 모델이 있다(전서희, 2015). 주 효과 모델은 외부자극과는 상관없이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정서적, 물질적, 정보 욕구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시켜 안정감과 환경에 대한 통제감에 안정과 적응을 향상한다는 것이다(홍구표, 2016). 다음으로 완충효과 모델은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등 부정적 정서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개인을 보호하여 완충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전서희·박경옥, 2015).

또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이론적 고찰을 통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는 우울, 심리적 만족도, 개인 건강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배점모, 2015).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한 사람들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겨낸다는 특성이 있다(조문주, 2007). 또한,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 중심 대처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서희·박경옥, 2015).

2.4.3 20대 남성과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수준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박은옥, 2011; Kendler, Myer, & Prescott, 2005), 남성보다 여성은 친밀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더 많이 가지고 있기에 사회적 지지 정도에서 남녀 간 차이가 있다(박은옥, 2011; Kendler et al., 2005). 국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우울을 설명하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박은옥, 2011).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큰 사회적 지지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Rotermann, 2007).

Erikson의 이론에 따르면 청년기는 ‘친밀감’을 경험하는 시기이며 이때 사회적 지지는 삶의 중요한 원천일 뿐 아니라 심리적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박선영·권석만, 2014).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 20대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유선, 2020). 20대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낮은 자신감으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정서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명숙·이효선, 2012).

2018년 발표한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대의 경우 가족 또는 친척과 연락 및 접촉이 없는 비율이 14.3%(2014년)에서 27.5%(2017년)로 증가했으며,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이야기 할 수 없는 비율은 16.0%에서 28.1%로 나타났다. 또한,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9%에서 11.3%로, 우울할 때 대화할 사람이 없는 비율은 3.3%에서 7.9%로 크게 늘었다(통계개발원, 2018). 20대 대학생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20대 대학생 남성의 경우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심리적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정서에 관해 면접한 연구결과, 20대 성인 대다수가 관계에 대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부모와 부모 외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은 성인은 심한 우울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경 외, 2018). 박의수와 조영채(2017)의 연구에서 남녀대학생 546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대학생들의 우울 수준은 사회적 지지가 낮고,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는 D 광역시의 일부 대학생이었으며, 성별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충분히 포함하지 않아 본 연구결과를 20대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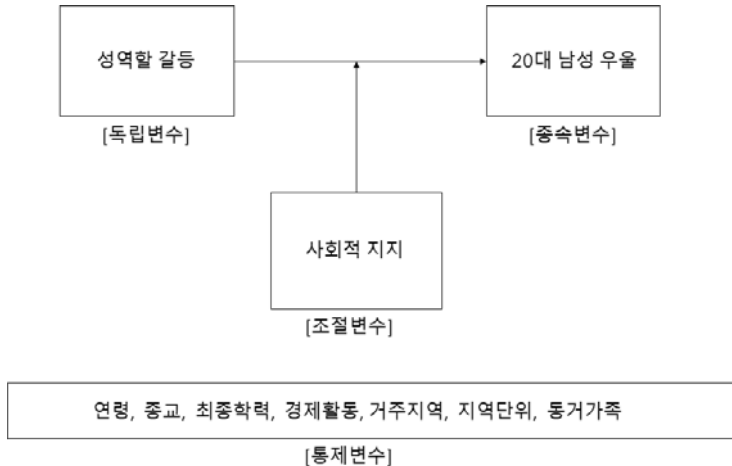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갈등이 20대 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성역할갈등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독립변수는 성역할갈등, 종속변수는 우울, 조절변수는 사회적 지지이며, 통제변수는 인

성역할갈등이 20대 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83

구사회학적 요인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종교, 최종학력, 경제활동, 거주지역, 지역단위, 동거가족을 포함하였다(박병선, 2012).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3.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20대 남성의 성역할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가 성역할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써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우울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
- 연구문제 2. 20대 남성의 성역할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20대 남성의 성역할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3.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남성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편의표집방법으로 2020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네이버 오피스에서 온라인 설문지로 작성된 설문을 연구참여자가 직접 응답하는 자기보고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설문지 링크를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SNS에 연구 참여자에게 공유함으로써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비밀보장과 솔직한 대답의 중요성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안내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총 89문항이며, 작성시간은 평균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불성실한 응답 8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88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종교, 최종학력, 경제활동, 거주지역, 지역단위, 동거가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의 [표 4-1]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전국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총 288명으로, 연구대상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최소연령은 20세였으며 최대연령은 29세, 평균연령은 24.7세로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무교 58.3%(168명), 기독교 32.6%(94명), 천주교 5.2%(15명), 불교 3.1%(9명), 기타 0.7%(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무교를 가진 응답자가 절반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51.7%(149명), 고등학교 졸업 45.1%(130명), 중학교 졸업 2.8%(8명), 대학원 졸업 0.3%(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은 무직 26.4%(76명), 취업준비 19.1%(55명), 정규직 17.7%(51명),

성역할갈등이 20대 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85

파트타임 15.3%(44명), 계약직 15.3%(44명), 직장체험 3.5%(10명), 기타 2.8%(8명) 순으로 나타나 경제활동 형태의 경우 다양한 응답자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으로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이 35.4%(10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라북도 23.3%(67명), 전라남도 9.7%(28명), 경상북도 6.6%(19명), 충청북도 6.6%(19명), 충청남도 6.3%(18명), 경상남도 5.6%(16명), 강원도 5.6%(16명), 제주도 1.0%(3명)로 나타나, 수도권과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에 비교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단위의 경우 중소도시 51.7%(149명)에 거주하는 연구참여자가 가장 많았으며 대도시 35.8%(103명), 읍·면 지역 11.8%(34명), 기타 0.7%(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 반절이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거가족의 경우 부모님과 형제자매 61.1%(176명)와 함께 거주하는 연구참여자가 가장 많았으며, 혼자 37.2%(107명), 배우자와 자녀 1.7%(5명) 거주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 대다수가 부모님 또는 형제/남매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N=288)

항목	평균(SD)	최솟값	최댓값
연령	24.7(2.50)	20.0	29.0

항목	구분	빈도(명)	백분율(%)
종교	무교	168	58.3
	기독교	94	32.6
	천주교	15	5.2
	불교	9	3.1
	기타	2	0.7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8	2.8
	고등학교 졸업	130	45.1
	대학교 졸업	149	51.7
	대학원 졸업 이상	1	0.3

경제활동	무직	76	26.4
	정규직	51	17.7
	계약직	44	15.3
	직장체험	10	3.5
	파트타임	44	15.3
	취업준비	55	19.1
	기타	8	2.8
거주지역	수도권	102	35.4
	충청남도	18	6.3
	충청북도	19	6.6
	강원도	16	5.6
	전라북도	67	23.3
	전라남도	28	9.7
	경상북도	19	6.6
	경상남도	16	5.6
	제주도	3	1.0
지역단위	대도시	103	35.8
	중소도시	149	51.7
	읍·면 지역	34	11.8
	기타	2	0.7
동거가족	혼자	107	37.2
	부모님, 형제/남매	176	61.1
	배우자, 자녀	5	1.7
	기타	0	0

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4.2.1 20대 남성의 우울

성역할갈등이 20대 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87

본 연구에서는 20대 남성의 우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0~4점 우울Likert 척도 20문항의 평균을 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0대 남성의 우울 현황의 구체적인 결과는 [표 4-2]에 제시하였다.

20대 남성의 우울 현황으로 전체평균이 2.03, 표준편차 0.60로 조사되었으며 최솟값 1.14, 최댓값은 3.71로 조사되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우울정서와 긍정정서와 평균값이 2.6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인관계 1.98, 신체적저하 1.63로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20대 남성의 우울평균은 손세리(2017)의 연구결과에서 보여준 1.7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2] 20대 남성의 우울(N=288)

구 분		평균(SD)	최솟값	최댓값
우울		2.03(.60)	1.14	3.71
하 위 요 인	우울정서	2.69(1.09)	1.00	6.00
	긍정정서	2.69(.73)	1.00	4.00
	대인관계	1.98(.71)	1.00	3.86
	신체적저하	1.63(.85)	1.00	4.00

4.2.2 20대 남성의 성역할갈등

다음으로 20대 남성의 성역할갈등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1~6점 성역할갈등 Likert 척도 37문항의 평균을 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갈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0대 남성의 성역할갈등 현황의 구체적인 결과는 [표 4-3]에 제시하였다.

20대 남성의 성역할갈등의 현황으로 전체평균이 3.09, 표준편차 0.96로 조사되었으며 최솟값은 1.19, 최댓값은 6.00으로 조사되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성공,권력,경쟁의 평균값이 3.6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장의무감이 3.40, 일·가정 양립 3.27, 감정표현억제가 3.27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과의 애정행동 2.51, 남성우월 2.44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20대 남성의 성역할갈등은 양순금(2017)의 연구결과에서 보여준 3.25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양순금(2017)의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는 20대와 함께 30대를 포함하였기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3] 20대 남성의 성역할갈등(N=288)

구 분		평균(SD)	최솟값	최댓값
성역할갈등		3.09(.96)	1.19	6.00
하 위 요 인	남성우월	2.44(1.23)	1.00	6.00
	일·가정양립	3.27(1.11)	1.00	6.00
	감정표현억제	3.27(1.11)	1.00	6.00
	성공,권력,경 쟁	3.68(1.02)	1.00	6.00
	남성과의 애정행동	2.51(1.22)	1.00	6.00
	가장의무감	3.40(1.22)	1.00	6.00

4.2.3 20대 남성의 사회적 지지

마지막으로 20대 남성의 사회적 지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1~5점 사회적 지지 Likert 척도 25문항을 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0대 남성의 사회적 지지 현황의 구체적인 결과는 [표 4-4]에 제시하였다. 20대 남성의 사회적 지지 현황으로 전체평균이 3.49, 표준편차 0.77로 조사되었으며 최솟값은 1.44, 최댓값은 5.00으로 조사되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평가적지지 평균값이 3.56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가 각각 3.52, 물질적지지가 3.3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20대 남성의 사회적 지지는 이현민(2019)의 연구결과에서 보여준 3.96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4-4] 20대 남성의 사회적 지지(N=288)

구 분		평균(SD)	최솟값	최댓값
사회적 지지		3.49(.77)	1.44	5.00
하 위 요 인	정서적 지지	3.52(.80)	1.29	5.00
	정보적 지지	3.52(.81)	1.50	5.00
	물질적 지지	3.33(.76)	1.17	5.00
	평가적 지지	3.56(.83)	1.00	5.00

4.2.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우울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5]에 제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연령($t=-4.184$, $p<.001$)과 종교($F=7.289$, $p<.001$), 경제활동($t=-3.511$, $p<.01$), 거주지역($t=-.4215$, $p<.001$), 지역단위($t=-3.736$, $p<.01$), 동거가족($t=3.770$,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령대의 경우 25세 미만과 25세 이상의 두 범주로 나뉘었을 때, 25세 이상일 경우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종교의 경우 Scheffe 사후검정 결과 무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있어 무교일 경우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가 우울하다는 기존의 선행연구(김지경 외, 2018)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거주지역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남성이 우울하다는 선행연구와 달리(보건복지부, 2011), 본 연구에서는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남성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남성보다 우울이 높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지역단위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상자보다 대도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거가족의 경우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대상자일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종학력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선행연구(이수연 외, 2011)와 차이점이 있었다.

[표 4-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N=288)

항목	구분	빈도	평균(SD)	t/F	p	Scheffe
연령	25세 미만	131	1.83(.06)	-4.184	.000***	-
	25세 이상	157	2.14(2.15)			
종교	무교(a)	168	2.17(.64)	7.289	.000***	a>b
	기독교(b)	94	1.78(.43)			
	천주교	15	2.02(.45)			
	불교	9	2.01(.70)			
	기타	2	1.45(.3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미만	8	2.30(.79)	1.312	.190	-
	고등학교 졸업 이상	280	2.02(.59)			
경제 활동	무	131	1.89(.54)	-3.511	.001**	-
	유	157	2.14(.62)			
거주 지역	수도권	102	1.84(.49)	-4.215	.000***	-
	비수도권	186	2.12(.63)			
지역 단위	대도시	103	1.83(.53)	-3.736	.001**	-
	대도시 외	185	2.19(.69)			
동거 가족	유	181	1.92(.54)	3.770	.000***	-
	무	107	2.20(.65)			

p<.01, *p<.001

4.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우울, 성역할갈등, 사회적 지지와 함께 통제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의 [표 4-6]에 제시하였다.

먼저 종속변수인 우울은 연령($r=.238, p<.01$), 경제활동($r=.203, p<.01$), 거주지역($r=.226, p<.01$), 지역단위($r=.201, p<.01$)간 관계에서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교($r=-.283, p<.01$)와 동거가족($r=-.228, p<.01$)간의 관계에서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성역할갈등은 연령($r=.163, p<.01$), 경제활동($r=.187, p<.01$), 거주지역($r=.245, p<.01$), 지역단위($r=.256, p<.01$), 우울($r=.727, p<.01$) 간 관계에서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교($r=-.283, p<.01$)와 동거가족($r=-.187, p<.05$)간 관계에서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는 최종학력($r=.316, p<.01$)과 동거가족($r=.210, p<.05$)간 관계에서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r=-.221, p<.01$), 경제활동($r=-.166, p<.01$), 거주지역($r=-.262, p<.01$), 지역단위($r=-.237, p<.01$), 우울($r=-.705, p<.01$), 성역할갈등($r=-.719, p=.05$)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연령이 25세 이상일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비수도권과 대도시 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종교와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에 우울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울과 성역할갈등 간 관계에서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성역할갈등이 높은 경우 우울이 높으며, 우울과 사회적 지지의 상관관계에서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 우울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역할갈등과 사회적 지지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사회적 지지가 낮을 경우 성역할갈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4-6]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N=288)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 연령1)										
2. 종교2)	-.241**									
3. 최종학력3)	.216**	.014								
4. 경제활동4)	.245**	-.062	.058							
5. 거주지역5)	-.187**	-.081	.228**	.009						
6. 지역단위6)	-.101	.001	.100	.077	.334**					
7. 동거가족7)	-.312**	.081	-.130*	-.212**	-.134*	-.066				
8. 상역할감등	.163**	-.283**	-.009	.187**	.245**	.236**	-.187**			
9. 사회적지지	-.221**	.317**	-.071	-.166**	-.262**	-.237**	.210*	-.719**		
10. 우울	.238**	-.283**	-.077	-.203**	.226**	.201**	-.228**	.727**	-.705**	

* p<.05, ** p<.01,

1) 25세 이상=1, 2) 종교 있음=1, 3) 고등학교 졸업 이상=1, 4) 경제활동 하고 있음=1, 5) 수도권 거주=1, 6) 대도시 거주=1, 7) 동거가족 있음=1

4.4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갈등과 20대 남성의 우울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7]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에 앞서, 모형 3에서 다중공선성이 높게 나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다시 변수계산을 통한 상호작용항을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박용권, 2012).

모형 1에서 독립변수인 성역할갈등과 더미변수화 한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형 1의 설명력은 54.7%였으며, 모형적합도는 $F=42.037(p<.001)$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대 남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성역할갈등의 경우 β 값이 .028($p<.001$)로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성역할갈등은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우울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2에서는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한 결과, 모형 2의 설명력은 61.0%였으며, 모형적합도는 $F=48.216(p<.001)$, R^2 변화량은 .063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β 값은 $-.361(p<.001)$ 로 부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인 성역할갈등의 β 값은 .417($p<.001$)로 1단계와 마찬가지로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역할갈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설명력은 62.4%였으며, 모형적합도는 $F=45.875(p<.001)$, R^2 변화량은 .013으로 나타났다. 1, 2단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던 통제변수인 최종학력이 β 값은 .029($p<.01$)로 나타나 최종학력에 따라 20대 남성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역할갈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β 값은 .029($p<.001$)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는 성역할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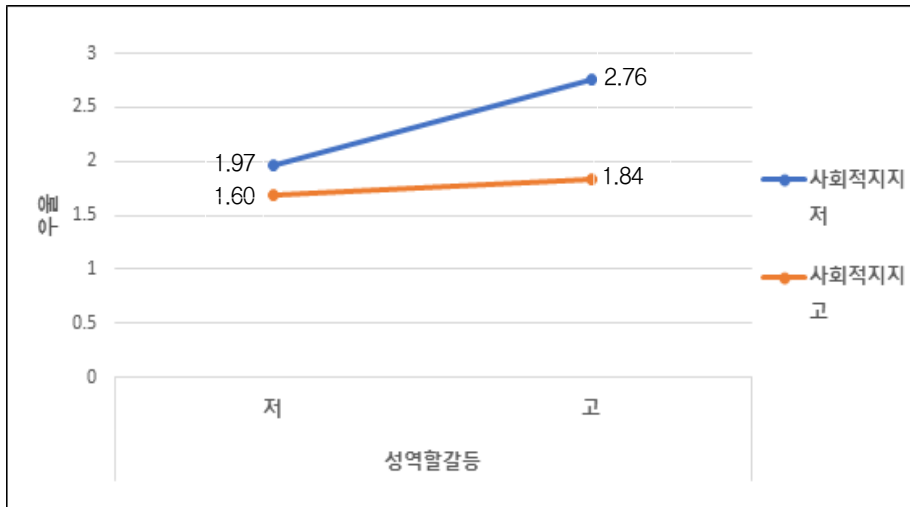
[표 4-7] 사회적 지지에 따른 성역할갈등과 우울 조절회귀분석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B	β	t	B	β	t	B	β	t
통계변수	연령1)		.186	.064	2.926	.173	.072	2.410	.178	.071	.136
	종교2)		-.080	-.066	-1.576	-.035	-.029	-.722	-.019	.047	-.401
	최종학력3)		-.414	.152	-2.728	-.460	-.127	-3.245	-.476	.139	-3.437**
	경제활동4)		.059	.050	1.188	.058	.049	1.245	.055	.046	1.218
	거주지역5)		.077	.055	1.399	.050	.040	.965	.023	.051	.456
	지역단위6)		.006	.038	.152	.001	.002	.038	.003	.035	.082
	동거가족7)		-.091	.052	-1.731	-.075	-.061	-1.534	-.066	.048	-1.372
독립변수	성역할갈등		.402	.028	14.336***	.260	.417	7.610***	.227	.034	6.580***
조절변수	사회적 지지					-.279	-.361	-6.500***	-.268	-.042	-6.381***
상호작용항	성역할갈등* 사회적 지지								-.110	.029	-3.789**
R^2				.547			.610			.624	
수정된 R^2				.534			.597			.610	
R^2 변화량				-			.063***			.013***	
F				42.037***			48.216***			45.875***	

¹⁾ 25세 이상=1, ²⁾ 종교 있음=1, ³⁾ 고등학교 졸업 이상=1, ⁴⁾ 경제활동 하고 있음=1, ⁵⁾ 수도권 거주=1, ⁶⁾ 대도시 거주=1, ⁷⁾ 동거가족 있음=1
*p<.05, **p<.01, ***p<.001,

성역할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시각화하기 위한 그래프는 [그림4-1]에 제시하였다. 본 그래프는 성역할갈등과 사회적 지지의 평균값을 통해 각각의 성역할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나누어 작성하였다. 상호작용효과의 경우 집단별 기울기의 차이를 보고 판단하는데, 그래프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각각 성역할갈등이 낮을 때와 높을 때의 우울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회귀선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두 집단 모두 공통으로 성역할갈등이 높아질수록 우울이 높아졌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의 경우 성역할갈등이 높아졌을 때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에 비해 더 우울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성역할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정적 영향 관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1]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그래프

V. 결론 및 제언

5.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갈등과 20대 남성의 우울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으로 온라인 설문지로 작성된 설문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직접 응답하는 자기보고방식으로 실시하였는데, 총 288부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우울의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연령의 경우, 25세 이상의 남성이 25세 미만 남성보다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5세 이상의 남성의 경우, 졸업 이후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낮은 자신감으로 인한(윤명숙·이효선, 2012), 우울을 더욱 경험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종교가 없는 남성이 종교가 있는 남성보다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를 가진 남성의 경우 영성이 우울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손진욱, 2008). 이 같은 결과는 종교가 있는 남성이 종교 이외의 종교모임 등에서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종교가 없는 남성에 비교해 우울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동거가족의 경우, 동거가족이 없는 남성이 동거가족이 있는 남성에 비교해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성보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남성이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규모에 있어서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남성이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남성보다 우울하다는 선행연구(보건복지부, 2011)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남성이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남성보다 우울이 높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선행연구는 이 부분에 있어 대도시의 삶의 방식과 익명성이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으나(이수연 외, 2011), 비수도권과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남성의 경우 일자리, 여가생활 기회 부족 등의 우울에 대한 여러 요인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 경제활동을 하는 20대 남성이 더욱 우울하다는 결과를 보아 20대 남성이 경제활동 현장에서 우울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등의 역기능적인 감정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의 스트레스와 우울 유발 요인에 대한 심리·정서적 개입방안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성역할갈등이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윤희·정주리, 2019; 제연화·심은정, 2015). 본 연구에서는 특히 성역할갈등의 하위요인에 있어 ‘성공, 권력, 경쟁’에 대한 요인에서 20대 남성들이 역기능적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기존 사회에서 내면화된 성역할로 인한 ‘성공, 권력, 경쟁’에 있어 부담을 가진 20대 남성에 대한 이해와 이를 위한 성역할갈등에 대한 상담 및 개입에 있어 실천적 방안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우울 수준을 연구한 박의수(2017)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인지나 행동특성이 낮을수록 우울 수준을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일치하다. 이 시기에 사회적 지지의 정서적 힘이나 지지가 없을 때 20대 남성의 우울은 심화된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체계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와 왜곡된 인식은 지원서비스의 접근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지경 외, 2018). 이를 위해 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천적·정책적 지지체계에 대한 홍보와 20대 남성의 욕구에 맞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역할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에 따라 성역할갈등과 우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은옥(2011)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남성의 우울의 예측인자로 나타나 남성 우울에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한 결과와 일치하며, 사회적 지지는 성역할갈등과 남성의 우울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연화·심은정, 2015).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20대 남성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 20대 남성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지가 무엇인지 연구하여, 사회 내에서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를 통한 20대 남성의 우울 예방 및 개선 방안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5.2 연구의 사회복지적 함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 남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정신건강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

하다. 본 연구는 인구 사회학적 요인을 통해, 종교 및 동거가족 여부, 거주지 규모에 따라 20대 남성의 우울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거주지역에 있어 비수도권과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남성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남성보다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정신건강지원체계 및 편의시설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이 하지 않는 남성에 비해 더욱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의 경우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부족하다. 이를 위해, 각 원인에 따른 정신건강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적으로 정신건강지원체계의 접근성이 낮은 20대 남성의 경우 온라인, SNS를 활용한 비대면서비스를 통해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직장생활을 하는 남성의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통해, 직장 내 개인의 정신건강 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와 직장 등에 속하지 않는 남성의 경우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가 연계하여, 20대 남성의 주변 지지체계를 형성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현장에서 20대 남성이 경험하는 성역할갈등에 대해 인식하고, 개입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대 남성의 성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성역할갈등에 있어 20대 남성이 성공, 권력, 경쟁과 가장 의무감에 대한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20대 남성의 정서적 측면에서 역할, 취업 등의 삶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20대 남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20대 남성이 경험하는 성역할갈등에 대해 인식이 부재하였으며,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이에 따른 인식과 개입이 부재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에서 남성이 경험하는 성역할갈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상담과 프로그램 개발 및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정책적으로 20대 남성에 대한 물질적 지지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대 남성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에 있어 20대 남성이 물질적 지지체계를 가장 낮게 인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질적 지지는 금전과 서비스 등의 경제적인 지지에 해당하는데, 20대 남성의 경우, 부모와의 경제적인 독립을 진

입하는 과정에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각 시·군·구는 정책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각 시·군·구에서 20대 남성의 욕구에 맞는 취업알선프로그램과 채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20대 남성은 SNS를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기 때문에, SNS 서포터즈를 구축하여 SNS를 통한 20대 남성의 의견 수렴 등의 제도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20대 남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성역할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높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그동안 관심이 부재했던 20대 남성의 사회적 지지가 20대 남성의 우울에 있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 내에서 20대 남성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이 낮으며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20대의 남성의 경우 입대, 취업, 결혼 등의 인생의 발달단계에서 중요한 과업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때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게 되면 20대 남성의 우울은 더욱 심각해진다. 이를 위해 20대 남성의 성역할갈등과 우울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에서 20대 남성에 관한 관심과 함께 다양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5.3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연구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서울과 전북에 거주하여 연구의 결과를 20대 남성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지역에 있어 균등하게 표집을 실시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온라인으로 실시된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이루어졌기에 연구대상자들이 연구에 있어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편향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더욱 정확한 연구를 위해 질적 연구를 함께함으로써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상경. 2010. “우울이 자살을 예측하는가: 우울과 자살태도 관계에서 성별·연령 차이.” 『사회복지연구』 41(2) 67-100.
- 강성옥. 2011. “청소년의 우울,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강초룡. 2017. “사회불안과 우울의 관계: 자기은폐와 자기-타인 표상 차이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연령대별 많이 나타나는 정신건강질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3. “마음의 감기 『우울증』 환자, 70대 여성이 가장 많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곽삼근, 조혜선, 윤혜경. 2005. “생애주기별 성역할 발달 및 갈등.” 『한국여성학』 21(2): 147-179.
- 권석만. 2013. 『현대이상심리학』 . 서울: 학지사.
- 권석만. 2014. 『이상심리학의 기초』 . 서울: 학지사.
- 권영순, 오서진, 이상주. 2020.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노년교육연구』 60(1): 1-20.
- 김경숙. 2020. “20대 성인의 우울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17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활용.” 『보건행정학회지』 30(20), 221-230.
- 김경휘, 유태균, 2013. 『사회복지 자료분석의 기초원리』 . 서울: 공동체.
- 김꽃송이. 2017. “남자 대학생의 성역할 갈등과 이성관계 만족도 간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명원. 2011. “우울과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초기성인을 대상으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령. 2005.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효과에 관한 이론 및 방법론적 고찰.” 『임상사회사업연구』 2(1): 99-121.
- 김보은, 조영일, 유지영, 최은실, 김혜영. 2016. “성인기와 노년기별 기혼 남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과 우울, 자아존중감의 관계.” 『보건사회연구원』 36(1): 473-496.

성역할갈등이 20대 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101

김새별. 2019.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학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5): 1101-1121.

김미혜, 이금룡, 정순돌, 2000. “노년기 우울증 원인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노년학』 20(3): 211-226.

김영희. 1988. “한국형 성역할 검사 개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7: 153-182.

김예지. 2018. “SNS에서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효과: 20대 성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경, 심준섭. 2016. “성역할 태도가 일-가정 양립 갈등에 미치는 효과.” 『국가정책연구』 30(4): 323-347.

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8.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94.

김지현, 최희철. 2007. “남성 성역할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도구성과 성역할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145-160.

김지현, 황매향, 유정이. 2003. “한국어 성역할갈등 척도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4(3): 25-30.

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 “중년남성의 성역할, 성역할갈등과 부부의 결혼만족.” 『상담학연구』 6(2): 621-632.

김진영. 2009. “한국 성인 집단에서 연령과 우울의 관계.” 『한국보건사회학회』 26: 89-113.

김춘경, 2016. 『상담학사전』. 서울: 학지사.

김현순, 김병석. 2018. “자살생각과 그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20(2): 201-219.

김현정. 2009. “남녀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역할정체감과 외모관련태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마경희, 조영주, 문희영, 이은아, 이순미. 2018. “성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27: 19-247.

모운수, 김지현. 2016. “중년남성의 성역할갈등과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의 관계에서 친밀감 두려움의 매개효과.” 『여성연구』 91: 97-126.

박경순, 박영란. 2018. “여성노인의 성역할 태도와 우울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57: 29-56.

박명실. 2005. “대학생 자살위험 집단유형의 분류, 평가 및 집단 상담치료적용.”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병선. 2012. “자살성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적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성별 및 연령집단별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2(3): 485-521.

박선영, 권석만. 2014. “삶의 의미와 주관적 안녕 및 우울의 관계: 대학생 집단과 중년집단의 비교.” 『한국임상심리학회』 33(3): 549-569.

박수애, 조은경. 2002. “남성 성역할이 우리나라 남성들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8(2): 77-103.

박은옥. 2011. “성별에 따른 성인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 17(2): 169-177.

박영신, 김의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박용권. 2012. 『사회복지자료분석』 서울: 신정.

박의수. 2017.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심리적 행동특성 및 스트레스가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 공분산구조분석에 의한 인과모델의 검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6): 209-218.

박재규, 이정림. 2020. “우울증상 변화와 성별 차이 분석.” 『한국복지패널』 3:303-323.

박재완, 최복규, 이상원, 이현주. “청년층의 우울증 개선을 위한 감정 인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3): 594-606.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변지영, 김선경. 2019. “남성 성역할갈등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우울과 자기개방 예상 위험의 순차적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0(3): 443-463.

배점모. 2015.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자치행정학회』 29(4): 49-70.

벨혹스, 2017. 『남자다움이 만드는 이상한 거리감』 서울: 책담.

성역할갈등이 20대 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103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2014년 기준 OECD 보건의료질지표 생산 및 개발』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2020. 『2020 자살예방백서』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보건복지부·중앙심리부검센터. 2020. 『경찰수사기록을 통한 자살분석결과 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심리부검센터.

서성만, 이미숙. 2016. “은퇴를 앞둔 장년남성의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265-265.

설현수, 유은경. 2015. “사회적 지지척도의 요인구조 탐색.” 『조사연구』 16(1): 155-184.

성윤희, 정주리. 2019.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차별적 인식과 남성 성역할 갈등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20(2): 547-567.

성준모. 2012.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스트레스 요인과 우울의 종단적 인과관계.” 『한국사회복지학』 64(4): 285-310.

손세리. 2017. “초기성인의 완벽주의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진욱. 2008. “영성과 우울증.” 『정신분석학회』 19(2): 101-110.

송리라, 이민아. 2012. “성역할태도와 우울.” 『한국인구학』 35(3): 87-116.

송인한, 이경원, 정집훈. 2019. “청년층 실업과 우울의 관계에서의 음주의 조절효과: 성별 차이 분석.” 『대한보건연구』 45(1):59-70.

심은정. 2016.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불안과 우울의 유병률과 관련 요인.” 『청소년학연구』 23(12):663-689.

안창일 외. 2019. 『이상심리학 2판』. 서울: 학지사.

양순금. 2017. “한국 청년 남성의 성역할갈등과 대인불안 간 관계에서 분리: 개별화와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성범. 2010. “한국판 남성우울척도(Korea masculine depression scale)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수현, 서규동, 유명이, 이봉재, 이종하. 2018.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서울: 신정.

윤명숙, 이묘숙. 2011. “지역사회 여성 노인들의 우울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6: 89-115.

윤명숙, 이효선. 2012. “대학생의 우울,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문제음주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3): 109-137.

윤서영, 장성만. 2019. “성별에 따른 우울증 양상과 신경전달물질의 차이.” 『생물치료정신의학』 25(1): 5-12.

윤진, 최정훈, 김영미. 1989. “성역할고정관념과 남성의 스트레스와의 관계-남성 스트레스 척도개발과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4(2): 70-83.

이동훈, 함경애, 김지윤, 김민경, 정성원, 김정범. 2013. “성별에 따른 주요 우울증의 DSM-IV 증상 연구.” 『재활심리연구』 20(3): 501-522.

이민아. 2020. “한국 중년남성의 성역할갈등과 중년 위기감의 관계에서 자아 정체감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및 연령대의 조절효과 검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상철, 조준영. 2017. “다차원적 사회적 고립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연령집단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24(2): 61-86.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2011. 『한국형 남성 성역할갈등 검사개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김진아. 2012.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여성연구』 82: 5-33.

이장범. 2012. “가출청소년의 우울과 사회적 지지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정림. 2011. “우울증 유형에 따른 대상관계 특성.”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항아, 윤명숙. 2016.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감정보동이 우울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4(1): 48-75.

이현민. 2019. “성인 초기 남성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SNS 노출과 성형의도의 관계에서 자기대상화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효영, 김경신. 2001. “중년기 기혼여성의 사회적지원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39(12).

장은정. 2020. “여성상담자의 성역할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선희. 2011. “성인남성의 성역할 갈등 및 성공 위험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검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전서희. 2014. “중년 남녀의 사회적 지지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우울의 관련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서희, 박경옥. 2015. “대도시 일부 중년 남녀의 우울증상과 관련된 사회심리적 요인: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중심으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2(3): 44-55.

전현규, 심재문, 이건창. 2015. “국내성인에 있어 우울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7): 264-281.

정경미. 2014. “남성의 성역할갈등과 도움추구태도의 관계: 수치심과 자기공개기대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경미, 신희천. 2014. “남성의 성역할 갈등이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과 자기공개기대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5(2): 79-98.

정미경, 2020. “소방공무원의 남성성역할갈등 및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광주대학교 보건상담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영심, 2000. “자기지각 및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연화. 2014. “남성 성역할갈등과 자살성의 관계: 우울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전문적도움추구 태도의 역할.”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연화, 심은정. 2015. “2/30대 남성의 성역할갈등과 우울의 관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27(4): 931-952.

조문주, 2007. “불안과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영임. 2018. “30대 한국 성인남성의 우울증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영임, 주은선. 2020. “30대 한국 성인남성의 우울증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사회과학연구』 59(1): 329-379.

존 베이넌. 2011. 『남성성과 문화』. 고려대학교 출판부

주유선. 2020. “청년의 사회적 지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84: 59-68.

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 2019.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자료)』 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

중앙자살예방센터. 2019.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보고서 (2016-2018년)』 중앙자살예방센터.

질병관리본부. 2018. 『2014, 2016,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본부.

채수정. 2018.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채수정, 이성규. 2019.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 문제성 도박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48: 25-43.

최명식. 1995. “남성 성역할 갈등이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별. 이성규. 2020. “사회적 지지와 노숙인의 자활의지 간 우울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7(1): 119-146.

최빛나, 김정민. 2019. “중년기 남성의 성역할갈등과 가족건강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 삶의 질 연구』 37(3): 73-88.

최정현. 2012. “남성우울 극복과정과 비판적-구성적 성찰.”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3): 281-321.

최희철, 정민선, 장지영, 김지현. 2011. “남성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기본육구충족의 매개효과 검증: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학연구』 12(2) 559-576.

통계개발원. 2018. 『한국의 사회동향』.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청. 2019. 『사망원인 및 사망원인통계결과』. 서울: 통계청

성역할갈등이 20대 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107

하문선, 김지현. 2013. “관계성과 우울을 매개로 한 초기 청소년의 성역할갈등과 공격성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4(2): 235-259.

하문선, 김지현. 2016. “남성 성역할갈등의 잠재집단과 남성성, 여성성, 우울, 자아존중감의 관계.” 『상담학연구』 17(5): 47-64.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2. “국내정신질환관련 연구현황 파악 및 우울증 자살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서울 YMCA. 2019. 『대중매체 양성평등내용분석 보고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서울 YMCA.

허혜경. 2010. 『사회변동과 성역할』 서울: 문음사.

홍구표. 2016.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예진, 박주희. 2015.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23(2): 189-210.

황옥경. 2004. “남성의 성역할, 성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하만, 김명자. 2017. “남자간호사의 성역할갈등,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23(1): 32-41.

황희만, 신호정. 2015.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사고 관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발달지원학회』 4(20): 91-112.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of buffer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Cohen, S., & Wills, T. A. (1985).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Dubow, E. S.,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0), 52-64.

Eisler, R. M., & Skidmore, J. R. (1987). Masculine gender role stress scale development and component factors in the appraisal of

- stressful situation. *Behavior Modification*, 11(2), 123-136.
- Good, G. E., & Mintz, L. B. (1990). Gender role conflict and depression in college men: Evidence for compound risk.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9, 17-21.
- Good, G. E., & Wood, P. K. (1995). Male Gender Role Conflict, Depression, and Help Seeking: Do College Men Face Double Jeopard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1), 70-55.
- House, J. S., Landis, K. R., & Umberson, D. (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 540-545.
- Kender, K. S., Myers, J., & Prescott C. A. (2005). Sex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risk for major depression: A longitudinal study of opposite-sex twin pai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2, 250-256.
- Kilmartin, C. (2005). Depression in men: Communication, diagnosis and therapy. *Journal of Men's Health and Gender*, 2(1), 95-99.
- Kilmartin, C. T. (2009). *우리안의 남성 [The Masculine Self, 3rd Ed.]* (김지현, 김현순, 조중신, 최희철 공역). 서울: 학지사.
- Kuebli, J., & Fivush, R. (1992). Gender differences in parent-child conversations about past emotions. *Sex Roles*, 27, 683-698.
- Lynch, J., & Kilmartin, C. T. (2007). *우울증에 걸린 남성구하기 : 가면 뒤의 고통*. 서울: 이레서원.
- Levant, R. F. (1992). Toward the reconstruction of masculin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5, 379-402.
- O'Neil, J. M. (1981a). Male sex-role conflicts, sexism, and masculinity: Implications for men, women, and the counseling psychologist. *Counseling Psychologist*, 9, 61-80.
- O'Neil, J. M. (1981b). Patterns of gender role conflict and strain: Sexism and fear of femininity in men's live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 203-210.

O'Neil, J. M. (2008). Summarizing 25 years of research on men's gender role conflict using the gender role conflict scale: New research paradigms and Clinical implic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6(3), 358-445.

O'Neil, J. M., Helms, B. J., Gable, R. K., David, L., & Wrightsman, L. S. (1986). Gender Role Conflict Scale: College men's fear of femininity. *Sex Roles*, 14, 335-350.

O'Neil, J. M., Fishman, D. M., & Kinsella-Shaw, M. (1987). Dual-Career Couples' Career Transitions and Normative Dilemma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5(1), 50-96.

Pleck, J. H. (1981). *The myth of masculinity*. Cambridge, MA: MIT Press.

Pleck, J. H., (1995). The gender role strain paradigm: An update(pp.11-32). In R. F. Levant and W. S. Pollack (Eds.),

A new psychology of men. New York: Basic Books.

Rotermann, M. (2007). Marital breakdown and subsequent depression. *Health Report*, 18(2), 33-43.

Shepard, D. S. (2002). A negative state of mind: pattern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men with high gender role conflict. *Psychology of Men and Masculinity*, 3(1), 3-8.

<Abstract>

**The Effects of Gender Role Conflict on Men's Depression in
Their 20's: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CHOI, JIN-YOUNG*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conflict and men's depression in their 20's. To that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288 men in their 20's nationwide for about three weeks from July 20 to August 10, 2020. Using the SPSS 25.0 program, the data were analyzed by independent-samples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shown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depression depending on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Second, gender role conflict has been shown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depression, and the higher the gender conflict, the higher the depression. Third, social support has been shown to have negative effects on depression. The higher the social support, the lower the depression. Fourth, social support has been shown to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gender role conflict.

The study provides social welfare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ntal health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various characteristics of men in their 20's. Second, social work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practitioners should recognize gender role conflicts experienced by men in their 20's and incorporate them into social work practice. Third, policy should emphasize the establishment of a material support system for men in their 20's. Fourth,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on social support experienced by men in their 20's.

부 록

- 심사규정
- 연구윤리규정
- 투고규정
- 편집규정

『사회과학논총』 심사규정

제1조(심사대상)

본 규정은 『사회과학논총』에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연구소의 『논문투고규정』과 『연구윤리규정』에 의하여 논문을 심사한다.

제2조(발간횟수 및 일자)

『사회과학논총』은 2017년호 부터 1년에 2회, 즉 5월 31일, 11월 30일에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간행한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학술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명을 포함하여 12인 내외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전공분야와 전국적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개최될 수 있으며, 필요시 인터넷을 이용하여 개최될 수 있다.
6. 임기 내에 편집위원을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편집위원사퇴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퇴한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활동)

1. 편집위원장은 『사회과학논총』의 편집 및 발행의 총 책임을 진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방침, 게재논문의 성격 등 『사회과학논총』 발행 및 기타 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편집위원장은 정기적인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편집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며, 필요시에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

1. 투고된 논문 한 편당 세 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해당 논문을 심사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심사를 요청한 논문의 저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배제한다. 심사위원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2.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야 하며, 특히 논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설적인 심사의견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의뢰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에게 심사논문에 대해 게재·일부수정 후 게재·전면적 수정 후 재심사·게재불가로 분류하여 평가한 심사보고서와 심사논문에 관한 상세한 논평을 담은 논문수정의견서를 제출한다.
6.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하여 저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6조(심사방법)

1.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익명(blind review)으로 이루어진다. 즉 심사 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한다.
2.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중개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3. 논문의 심사방법은 본 연구원의 심사평가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7조(심사의 기준)

논문심사는 요건심사와 내용심사로 이루어진다.

1. 요건심사는 편집위원 1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내용심사에 회부된다. 요건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논문투고자격 여부
 - (2) 논문투고규정 준수 여부
2. 내용심사는 3인의 심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주제의 적합성(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여부)
 - (2) 연구내용의 참신성(이론적·실무적 관점 포함)
 - (3) 연구방법의 적절성(이론전개 및 실증적 연구포함)
 - (4) 논문구성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 (5) 연구결과의 기여도(현실적 시사점 포함)
 - (6)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논문작성 기준과의 부합여부)

제8조(심사의 절차)

1. 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된 후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며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집필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내리는 동시에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에서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원 초청 논문 또는 특별기고 논문 등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심사결과의 결정)

1. 요건심사에 합격한 논문에 한하여 내용심사를 실시한다.
2. 내용심사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게재가능(A): 일부 보완 또는 원안게재: 수정여부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 (2) 수정 후 게재(B): 수정된 논문을 심사자에게 재회부하여 수정여부 확인
 - (3) 전면수정 후 재심(C):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 의뢰
 - (4) 게재 불가(D): 부적합 사유를 심사평가서에 자세히 밝힘
3.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출된 논문을 1) 게재, 2) 일부수정 후 게재, 3) 전면수정 후 재심, 4) 게재 불가로 나누어 판정한 후 그 심사결과를 논문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심사위원이 별도로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동봉하여 필자가 논문을 수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 1) 게재: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적격 판정을 한 경우에는 게재로 결정하여, 편집위원장이 이 사실을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 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용된다.
 - 2) 일부수정 후 게재: 일부 수정 후 게재로 결정된 경우에는 수정 논문을 제출받고 이에 대해 편집위원장이 수정정도를 평가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3) 전면수정 후 재심사: 전면적 수정 후 재심사로 결정된 경우에는 수정 논문을 제출받고 이를 다시 원래의 심사위원이 재심사하도록 한다. 이때의 판정은 게재 또는 게재불가 중 하나로 결정한다.
 - 4) 게재불가: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에 게재불가로 결정

하여, 편집위원장 명의로 게재불가의 사유를 명기하여 본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결과 판정 기준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게재	게재 불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일부 수정 후 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 불가	
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전면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제10조(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1. 논문제출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여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재심 요청의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논문 게재)

1. 심사결과 처리방식에 따라 최종적으로 게재가능 평가시 논문집에 게재한다.
2. 편집위원회는 원고 중 편집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필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게재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 (1) 심사자의 정당한 지적사항을 이유 없이 수정 또는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 (2) 수정, 보완한 내용이 미흡하여 게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본 연구원의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4. 논문의 게재순서는 학술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조정한다.
5.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게재 확정된 후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발행한다.

제12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회과학논총』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사회과학논총』에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술지 원고 모집시 연구윤리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시하며,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한 시점에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회과학논총』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논문의 표절, 위조 및 변조,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관한 사실이 발견된 논문은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주시되, 해당 논문은 심사 및 게재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관련 학술지 편집자에게 통보합니다.”

제2조(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 활동의 범위는 본 연구소가 주관·참여하는 모든 학술회의 발표문과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사회과학논총』에 투고하는 논문이다.

제3조(표절·위조·변조 및 중복게재 정의)

연구윤리규정의 위반행위는 연구수행 및 투고과정에서 행해진 표절, 위조, 변조,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의 각 사항을 고려한다.

1. 표절: 타인의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절차 없이 도용하거나 기 출간된 본인 또는 타인의 저술 내용의 일부를 출처 제시를 생략하고 본인의 생각인 것으로 혼동을 주는 경우
2.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 및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3. 변조: 연구자료 및 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및 삭제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를 훼손 또는 왜곡시키는 경우

4.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 연구자의 기 출간된 연구물을 새로운 것처럼 다시 게재하거나 투고한 경우

제4조 (편집위원회의 권한)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권한을 가지며, 편집위원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연구자, 심사위원,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해 위반행위 여부를 검토, 판단하고, 그 결과를 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 심사규정 제9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연구자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
3.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사실을 해당연구자에게 통보하고 소정의 기한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며, 최종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보자 및 해당연구자의 신원 및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해당연구자가 소명 등의 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또는 소명행위 등이 소정의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9조 연구윤리규정의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포함한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위반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단, 해당 윤리규정 위반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편집위원은 판정과정에서 배제된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의무)

편집위원회에 의해 연구윤리규정 위반판정을 받은 논문의 연구자는 판정 이후 3년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회과학논총』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1. 논문게재 이후 연구윤리규정 위반판정을 받은 논문은 『사회과학논총』의 공식적인 논문목록에서 삭제되며, 이후 발간되는 『사회과학논총』

- 과 사회과학연구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2.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최종판정과 제재 조치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제보자와 피조사의 권리보호)

1.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 과정이나 조사보고서에서 노출하지 않는다.
2.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편집위원회나 연구윤리위원회를 제외한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윤리규정 시행지침)

1. 논문 투고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2.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연구소 규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개인정보 취급)

1. 논문의 투고, 심사 과정에서 제공된 개인정보는 한국연구재단의 정보 등록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할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논문 게재, 탑재의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제9조(연구윤리 세미나)

1. 교내·외 사회과학대학 교수·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1월 연구윤리세미나를 개최한다.
2. 세미나의 강연자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10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1. 연구윤리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연구윤리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연구윤리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회과학논총』 투고규정

1. 『사회과학논총』은 사회과학분야의 전문학술지이며 여기에 발표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사회과학논총』에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영문 원고도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논문의 투고자격은 원칙적으로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자로 한하며, 석사과정 연구자는 교신저자인 지도교수와 함께 공동연구자의 자격으로 투고할 수 있다.
2. 본 연구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사회과학논총』는 매년 5월 31일, 11월 30일에 발간하며, 투고 논문은 상시 접수한다. 다만, 해당 호에 게재를 하기 위해서는 발간예정일 45일 전까지(각각 4월 16일, 10월 15일)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2개월 이전까지 투고하더라도, 투고논문의 수에 따라 다음호에 게재될 수 있다.
3. 두 편 이상의 논문을 동시 투고하여 게재가 확정되더라도 한호에 동시에 게재할 수는 없다.
4. 연구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1) 투고신청서와 (2) 워드프로세서(한글 97 이상)를 이용하여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 원고를 아래의 전자우편 주소로 제출한다. 투고신청서는 본연구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다. Email: iss@ssu.ac.kr
(<https://iss.ssu.ac.kr/modules/doc/index.php?doc=intro>)
5. 논문분량은 A4 용지 20매(참고문헌, 초록 포함)로 제한한다. 논문이 20매를 초과할 경우 1매당 게재료 1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6. 타인의 논문이나 자신의 다른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한 내용을 포함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7. 유사한 시기에 다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은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심사 과정이 끝날 때까지 다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8. 학위논문의 내용을 정리하여 투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논문 첫 페이지에 학위논문을 정리한 것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9.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한 편당 90,000원의 심사료를 다음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게재불가 논문에 대해 불복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90,000원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은행 1002-359-483614 예금주: 박웅기
10. 논문 게재가 확정된 경우 한 편당 100,000원의 게재료를 위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11. 편집위원회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주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백마관 213호
12.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2017년 3월 이후부터 『사회과학논총』에 투고하는 모든 인간 대상 연구는 IRB 심의 및 승인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13.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투고논문에 대해 표절 검증을 실시하고, ‘표절검증결과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4. 『사회과학논총』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되며, 이 전된 저작권은 게재된 논문을 모든 기록 및 전자매체를 통해 수록, 출판, 전송, 배포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저작권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논문

이 『사회과학논총』에 게재된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한, 저자는 자신의 논문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 논문 제출처: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주소: (156-743)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 E-mail: iss@ssu.ac.kr
- TEL: (02) 820-0844 / FAX: (02) 820-0835

『사회과학논총』 편집규정

1. 논문의 투고는 반드시 아래의 편집양식 규정에 맞춰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저자에게 반환된다. 본문에서는 논문의 제목을 본문의 첫 장에 기재하고,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심사위원이 필자를 알 수 있게 하는 서술은 삼가야 한다. 논문의 편집은 한글 hwp 또는 word 파일로 작성하며, 논문의 전체 분량은 A4 25매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 1) 글꼴: 신명조, 언어: 대표
- 2) 글자 크기: 큰 제목 11.5 pt, 작은 제목 11 pt, 본문 및 참고문헌 10.5pt, 요약문 9.5pt, 각주 및 인용문단 9pt, 그림 및 표 8pt
- 3) 글자모양: 상대크기 100%, 장평 100%, 글자위치 0%, 자간 0%
- 4) 문단모양: 첫 줄 들여쓰기 10pt, 줄 간격 16.5pt, 정렬방식 양쪽혼합, 낱말간격 0, 최소공백 60
- 5) 편집용지: 종류 사용자 정의, 폭 166.0mm, 길이 237.0mm, 용지방향 좁게
- 6) 용지여백: 위 21mm, 아래 23mm, 좌·우 각 22mm, 머리말·꼬리말 각 9mm, 제본 0mm
- 7) 문 및 영문요약은 요약문_미화, 대표, 신명조 9.5 형식으로 A4 용지 단면 1/2장 이내로 작성하되 주제어 및 Key Words(영문 첫 글자는 대문자)를 각각 4-5개씩 포함한다.

2.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집필되어야 한다.

- 1) 논문제목
- 2) 성명
- 3) 국문초록(한글 10줄 이내, 주제어)
- 4) 서론(연구배경, 연구질문, 선행연구 등)
- 5) 연구방법(기본틀, 논리, 모형 등)

- 6) 연구결과
 - 7) 함의 및 결론(연구결과의 반복 지양)
 - 8) 참고문헌
 - 9) 영문초록(500단어 내외, Key words)
 - 10) 부록(필요한 경우)
3. 본문의 구분은 절, 항, 목 순으로 배열한다. 절은 ‘I., II., III....’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목은 ‘(1), (2), (3),...’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가능하면 세분화를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 ‘i), ii), ...’를 따른다. 표나 그림은 세분화 없이 일련번호를 ‘<표 1>, <그림 1>...’ 등과 같이 부여한다.
 4. 국문 논문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국문 다음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할 수 있다. 논문 첫머리의 필자 등의 소개나 감사의 글 또는 연구지원 기관 등 각주는 *, **, *** 등의 기호를 사용하고 본문에서의 일반적인 각주는 1), 2), 3) 등으로 표기한다.
 5. 수식의 경우 번호 매김은 장, 절의 구분 없이 우측 정렬하여(선 없음), 괄호 속의 일련번호로 표기한다. 세분화된 수식 번호는 ‘(1), (1)’, (1)”, ...’를 사용한다. 단, log, ln, max 등의 기호는 정자체로 표기하고, a/b+c와 같이 혼동되기 쉬운 표현은 (a/b)+c나 a/(b+c)로 명확히 표현토록 한다.
 6. 인용논문의 표기는 간단한 경우는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서 직접 처리한다. 영문저자의 경우는 국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저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는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한다.
 예 1) Barnett, Offenbacher, and Spindt(1084)와 조용범(1972)에서 지적된.....
 예 2) 산업 정책의 기존 연구(Leon and Bradlet, 1981; Reich, 1982) 들을 종합하면.....
 예 3) 실시해 왔다(홍길동, 1983: 1-15).

7. 번역서의 경우 본문인용은 (원저자, 원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번역서 및 일간지 기사자료의 참고문헌 표기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예) 본문인용: (Schivelbusch, 1996)

예) 참고문헌:

Schivelbusch, Wolfgang. 1996. *Geschichte der Eisenbahnreise: zur Industrialisierung von Raum und Zeit im 19. Jahrhundert* (박진희 역. 『철도 여행의 역사 - 철도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서울: 궁리).

경주신문. 2005. “고준위 핵폐기물 대책마련을.” (4월 8일).

8.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각 문헌은 한글 문헌, 기타 동양 문헌, 영어, 기타 서양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배열의 순서는 가나다 또는 알파벳순으로 한다.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최신 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단, 동일 저자의 저작물이 여러 편일 경우 두 번째부터는 ‘_____’로 인명을 대체한다.

10. 참고문헌의 표시는 반드시 아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논문(학위논문 포함)이나 기사 등은 따옴표 “ ”로 표시하고, 저서 또는 역서(그리고 편저서, 학회지,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등)는 국문 또는 기타 동양 문헌의 경우 이중격쇠 『 』로, 보고서 및 발표논문집의 경우 격쇠 「 」로 하며, 영문의 경우 기호 없이 표기한다. 참고문헌의 작성방법은 저자, 년도, 제목, 출판사 또는 학술지, 권(호), 페이지의 순으로 한다.

<참고문헌 예>

① 논문

- 서문기. 2008. “사회발전과정에서 정보화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15(4): 105-119.
- 박종민·김왕식. 2006. “한국에서의 사회신뢰의 형성: 시민사회와 국가제도의 역할.” 『한국정치학회보』. 40(2): 149-167.
- 이재열. 2003. “사회적 자본과 시민의식.” 『지역사회학』. 5(1): 41-82.
- _____. 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계간사상』. 여름호: 65-93.
- Nicholson-Crotty, S. 2005. “Bureaucratic Competition in the Policy Process.” *Policy Studies Journal*. 33(3): 341-360.
- Freeman, N. and D. Hew. 2002. “Rethinking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ASEAN Economic Bulletin*. 19(1): 1-5.

② 저서

- 좌승희. 2008. 『진화를 넘어 차별화로』. 서울: 지평.
- 차종천. 1990. “세대간 사회이동의 지역격차.”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pp.193-212. 서울: 성원사.
- Bell, D.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 Basic Books.
- Lange, M. and D. Rueschemeyer. 2005. *States and Development: Historical Antecedents of Stagnation and Advance*. London: Macmillan.
- Borner, S., F. Bodmer, and K. Markus. 2004. *Institutional Efficiency and its Determinants: The Role of Political Factors in Economic Growth*. Paris: OECD.

③ 기타

김성배. 200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의 역할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최향섭. 2006. 『사회적 신뢰제고를 위한 IT정책 연구』.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vans, P. 1999. “Transferable Lessons? Re-Examining the Institutional Prerequisites of East Asian Economic Policies.” In Y. Akyuz. (ed.) *East Asian Development: New Perspectives*. pp. 66-86. London: Frank Cass.

Foucault, M. 1969.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translated by A. Smith. London: Macmillan.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김지영 (숭실대학교)

편집위원 : 공진성 (조선대학교)

송영훈 (강원대학교)

최권호 (우송대학교)

구교태 (계명대학교)

박한우 (영남대학교)

홍원식 (동덕여대학교)

김병희 (서원대학교)

김지영 (숭실대학교)

최영준 (연세대학교)

편집간사 : 김다희 (숭실대학교)

사회과학논총 제 23 집 (2020)

2020년 12월 31일 인쇄

2020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황준성

편집인 / 백경민

발행처 / 숭실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

(06978)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69

TEL: (02) 820-0844

FAX: (02) 820-0835

E-mail: iss@ssu.ac.kr

편집 · 인쇄 / 진흥인쇄랜드

TEL: (02) 812-3694

非賣品